

# SOLO SHOW:ON 2020.10.15-10.27




SOLO SHOW는 참여 공간별 한명의 작가만을 소개하며 미술 콘텐츠 유통의 구조와 역할을 연구하는 행사입니다.

기획: 협동작전 [www.soloshow.info](http://www.soloshow.info)

# SOLO SHOW:ON 2020.10.15-10.27

## 참여갤러리 & 작가

클릭하시면  
해당 갤러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 가나아트 : 박형지
- 9 갤러리 신라 + 아트 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15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21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27 갤러리 2 : 손동현
- 33 갤러리 이알디 : 함미나
- 39 김성우 독립기획자 : 최고은
- 45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51 백아트 : 임소담
- 57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63 아트사이드갤러리 : 송수민
- 69 의외의조합 : 이동훈
- 75 조현화랑 : 조종성
- 81 팩토리2 : 민정화
- 87 플레이스막 : 박철호
- 93 학교재 : 김재용
- 99 합정지구 : 김민희
- 105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111 P21 : 최정화
- 117 Whistle : 김지영

# SOLO SHOW: ON 2020.10.15-10.27

가나아트

gana art

박형지

박형지는 캔버스 위에 축적된 재료들의 물성과 그림을 그리는 '신체적 행위'에 중심을 둔 추상화를 구현한다. 물감을 쌓아 올리고, 이를 긁고 지우고, 다시 붓질을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가는 '고뇌'와 '실패'를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작가의 고찰은 단순히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단단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때문에 그녀의 작업은 두텁게 칠해진 물감과 즉흥적인 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 동력을 얻는다는 작가는 뉴스나 팟캐스트에서 접한 사회적 이슈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생각이나 내면의 감정들을 신체적 행위를 통해 추상적으로 풀어내는데, 이는 그녀가 소재로 삼은 이야기들이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시각정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고뇌를 통한 해석의 과정을 거친 감각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회화는 선택과 결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빈 캔버스에서 일어나는 붓질, 물감의 컬러와 두터움, 질감, 형태를 만드는 일과 같은 회화적 결정이 어떠한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다음의 과정이 시작된다. 때로 이 사건들은 결말 없이 무한 반복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세 번째 사건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 작가 인터뷰 중

박형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전문사를 졸업한 후,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다. 이후 2010년 노팅햄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에 서울에서 첫 전시를 보인 후, 꾸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플레이스막에서 <비협조적 블루>라는 프로젝트명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Hyung ji Park

Hyung ji Park (b.1977-) captures the moments that have passed by everyone and then solves them in the artist's own pictorial language. From personal experience to social issues, the range of narratives handled is very vast. When news that everyone may have heard at least once becomes dim in their respective memories, her consideration continues and is kept as a precious source. Her work begins with an attempt to explore the properties of materials, not with any direction and intention. The canvas is filled with coincidental thinking and repeated actions that the materials create, ruining and covering. Continuing this, the organic nature and changes in emotions felt by her melt into the texture, thickness, and brush strokes of the paint to compose the story. Her work is completed when the moment of the thought experience is not shaped, but is solved, transformed, lost in detail, and filled with pictorial imagination and amusement.

“To me, painting is a process of repeating choices and decisions countless times, and is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a kind of “incidents” that arise in this process. When pictorial decisions such as brush strokes, color and thickness of paint, texture, and shape in empty canvas become any ‘incident’, the following process begins. Sometimes these events are repeated indefinitely without ending, but what's clear is that the first one brings the second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the third.”

- during artist interviews

Hyung ji Park is graduated BFA in Hongik University and MFA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fter MA in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ondon, she held first solo exhibition in Nottingham. In 2012, her first solo show is held in Seoul and has kept working steadily ever since. In this year, she successfully completed solo exhibition titled “Uncooperative Blue” at the Placemak in Seoul.

가나아트 : 박형지

# SOLO SHOW: ON 2020.10.15-10.27

지구평면론자  
The Flat Earthers II

2019  
Oil on canvas  
200×175cm



가나아트 : 박형지

# SOLO SHOW:ON 2020.10.15-10.27

한파경보  
Cold Weather

2019  
Oil on canvas  
100×75cm



가나아트:박형지

# SOLO SHOW:ON 2020.10.15-10.27

지구평면설  
The Flat Earthers I

2019  
Oil on jute  
200×180cm



가나아트 : 박형지

# SOLO SHOW: ON 2020.10.15-10.27

원석사냥꾼 II  
Meteorite Hunters II

2019  
Oil on linen  
180×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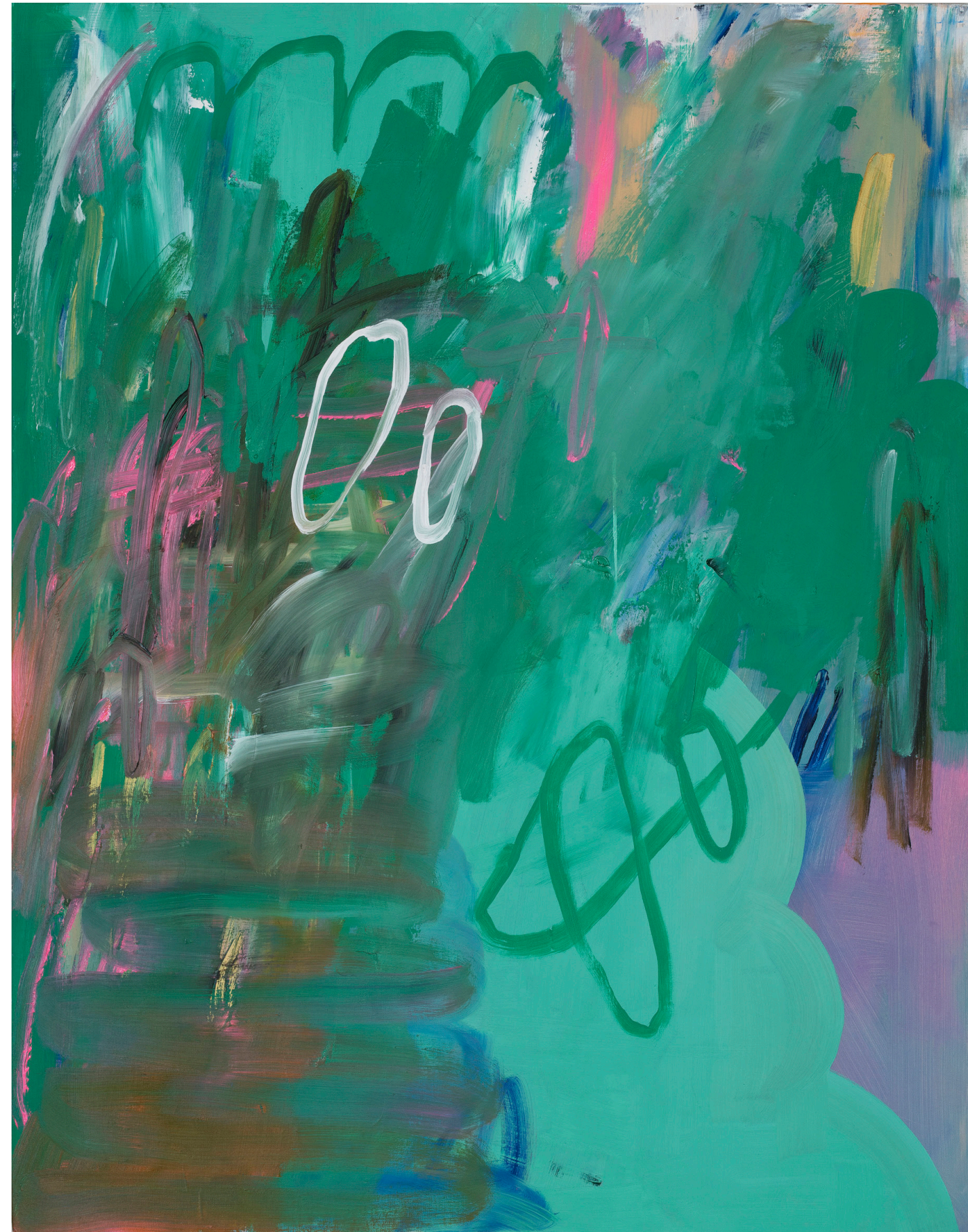


가나아트 : 박형지

# SOLO SHOW: ON 2020.10.15-10.27

무제  
Untitled

2019  
Oil on canvas  
116.8×91 cm



가나아트 : 박형지



# SOLO SHOW:ON 2020.10.15-10.27

갤러리 신라  
+ 아트 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Art Projects and Partner  
GALLERY SHILLA

## 구자현

구자현(b.1955)은 대구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대학과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큐슈 산업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80년대 말 귀국 후 화단에서 판화와 회화작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2002년 공간 국제판화비엔날레전 대상, 1998년 삿포로 국제현대판화비엔날레전 스폰서상, Frechen(서독국제판화비엔날레전) 등 20여 회의 수상과 국내외에서 30여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 Koo Ja-Hyun

After finishing his Bachelor of fine art In Hong Ik university, Koo Ja Hyun studied Painting and Prints in Osaka University and Kyoto Seika University. Then he acquired the master's degree in Kyu Shu Sangyo University.

Since 1980's, Koo Ja Hyun has continued his works in paintings and prints. He achieved numerous award including Sapporo International Contemporary Prints Biennale Sponsor Award<sup>1998</sup>, International Prints Biennale Award<sup>2002</sup>.

대구 광역시 중구 대봉로 200-29  
화-토 오전 11시~오후 6시, 일 오후 12시~6시, 월 휴관  
200-29 Daebong-ro, Jung-gu, Daegu  
Tue-Sat 11am~6pm, Sun 12~6pm, closed on Mon

tel. 053-422-1628  
email: gshilla@gmail.com  
homepage: www.galleryshilla.com  
instagram: @galleryshilla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Untitled

2020

Linen, gold leaf, glue on canvas

90.9×72.7 cm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Untitled

2020

Linen, gold leaf, glue on canvas

90.9×72.7 cm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Untitled

2020

Pigment, gold leaf, glue on canvas

90.9×72.7 cm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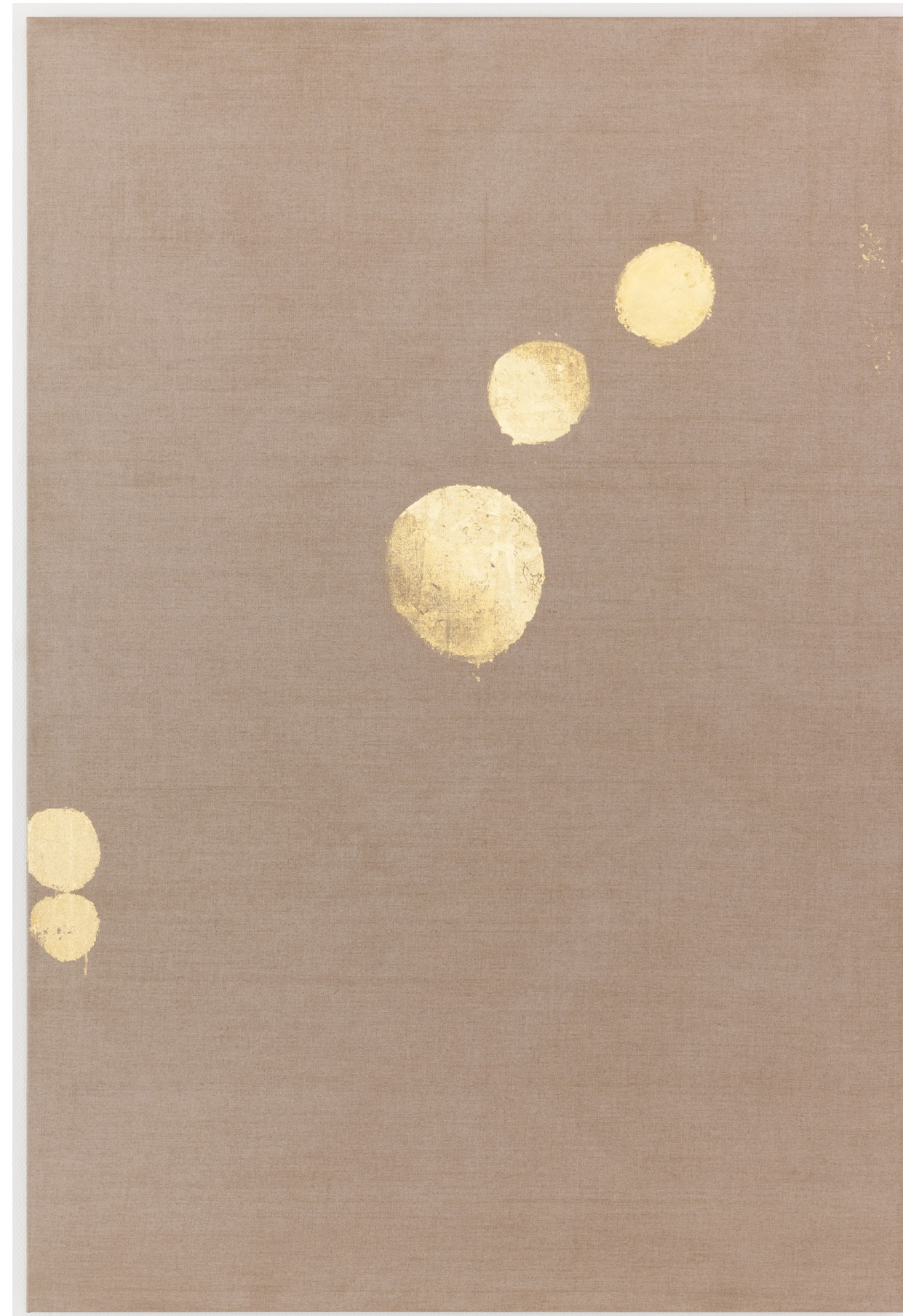
# SOLO SHOW:ON 2020.10.15-10.27

Untitled

2019

Linen, gold leaf, glue on canvas

193.3×130.3cm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Untitled

2019

Linen, gold leaf, glue on canvas

227.3×182.1 cm



갤러리 신라 + 아트프로젝트 앤 파트너스 : 구자현

# SOLO SHOW: ON 2020.10.15-10.27

갤러리 조선



한선우

나가람 독립큐레이터

Sun Woo

Nah Garam Independent curator

이미지는 과거 그 유통과 존재를 지탱하기 위해 물리적인 구조물을 필요로 했지만, 데이터로 소환된 이미지들은 최초 실물에 대한 (덜떨어지는) 복제로 존재했던 시간을 지나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넷을 활보한다. 한선우가 조형해 낸 화면 속은 밈(meme)과 고전적인 회화의 상징(symbol)을 거칠게 덧붙이고 이를 바르게 재단한 듯 보인다. 각각의 개체들은 포토샵의 이미지 레이어처럼 서로 겹쳐지고 조합된다. 이미지들이 서로 겹쳐지며 만들어진 교집합은 서로를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이며 텅 빈 상징으로 만들어진 여백이다.

웹상에 떠도는 스탁 이미지(Stock Image)와 같은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레이어로 구분되어 서로의 가장자리를 지키며 간섭한다. 스틸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포토샵의 드롭-쉐도우(Drop-shadow) 효과를 현실 세계에 소환한 듯이 보인다. 한선우의 이전 전시에서 화면 밖으로 탈출하여 화이트 큐브 속으로 침투하는 듯 한 모양새를 띄고 있는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늘어지거나 잘리고 뒤틀리는 등 난도질당한 이미지들은 벽 그리고 공간과 관계하며, 현실로 재귀하고자 한다. 걸려있는 회화와 함께 호흡하는 벽면의 이미지는, 현실을 모방하는 가상 그리고 가상과 닮은 현실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회화라는 물리적인 가장자리의 안과 밖에서, 이미지들은 우리의 시각 체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편집과 물감으로 표현된 육체적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불특정한 어떤 시기에 와 인터넷 이미지는 재현이기를 멈추고, 조각난 현실 세계(fragment of the real world)로서 관계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를 생산해내는 주체와 물리적 지지체가 무엇이었던, 이미지란 항상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담아낸 시각적 지표였다는 점이다. 이미지들은 과거의 서사를 트라우마 화 하여 입고 있는 '멍든 이미지(bruised image)'가 되며, 빠르게 유통, 소비되어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와 있다. 동시대 현실 속 변화를 흡수하고 소비하는 주체 중 하나인 작가는 회화의 오래된 숙명을 수행하는 화가이며 동시에 인용과 복제, 변형을 반복하는 익명의 유저(user)이다.

In the past, images relied on physical structures for distribution and existence. Today, these images, summoned in the form of data, stride through the internet independently. The surfaces constructed by Sun Woo appear as though memes from the net and symbols from classical paintings have been jaggedly pasted onto one another, then neatly trimmed. Like the layers in Photoshop, these images are overlapped and combined, and the intersections created in this process act simultaneously as clues for understanding their relationships, as well as a blank space that consists of empty symbols.

Each component, such as stock images from the web, is separated by invisible layers, interfering with one another's boundaries without crossing them. The shadow created by a steel frame seems to have brought the drop-shadow effect from Photoshop into the real world. In Sun Woo's previous exhibitions, one could perceive images that seemed to escape from the bounds of the frame and infiltrate into the white cube. Mangled images that are stretched, cropped and distorted, appeared to return to the real world as they interacted with the exhibition space. Breathing together with the paintings hanging on the wall, these images seemed to manifest a subtle tension between the virtual and real. Both within and beyond the physical boundary of painting, images revealed themselves based on our visual systems through the physical labor of digital editing and painting.

At a certain, unspecified point in time, digital images ceased to exist as mere representations and began to breathe as fragments of the real world. What we need to note is that images have always been a visual index pointing to our desires and fears, regardless of what had produced them or what physical structures had supported them. Clothed in traumatized narratives of the past, these images become 'bruised images,' becoming distributed and consumed rapidly in order to reach the place that we want them to be. As a subject who absorbs and consumes changes in the contemporary reality, Sun Woo is at once an artist who performs the long-held role of painting, as well as an anonymous user who continuously repeats the act of appropriation, replication, and mutation.

## 갤러리 조선 : 한선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길64

화-토 오전 10:30~오후 6:30, 월, 일 휴관

64, Bukchon-ro 5-gil, Jongno-gu, Seoul

Tue-Sat, 10:30am~18:30pm, closed on Sun, Mon

(솔로쇼는 기존 전시공간 운영 시간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tel. 02-723-7134

email: yeo@gallerychosun.com

homepage: www.gallerychosun.com

instagram: @gallerychosun

# SOLO SHOW:ON 2020.10.15-10.27

지난 날  
Dear Diary

2020  
Acrylic on steel  
37×30cm

500,000 KRW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SOLO SHOW: ON 2020.10.15-10.27

춤  
The Dance

2020  
Acrylic on steel  
37×30 cm

500,000 KRW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SOLO SHOW:ON 2020.10.15-10.27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I Shed Tears Sometimes

2020  
Acrylic on steel  
37×30 cm

500,000 KRW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SOLO SHOW: ON 2020.10.15-10.27

서프  
Surf

2020  
Acrylic on steel  
37×30 cm

500,000 KRW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SOLO SHOW:ON 2020.10.15-10.27

기억해줘  
Do You Think of Me Still

2020  
Acrylic on steel  
37×30 cm

500,000 KRW



갤러리 조선 : 한선우

# SOLO SHOW: ON 2020.10.15-10.27

갤러리 플래닛

GALLERY  
PLANET ●

이은선

이은선(b.1978)은 한국과 시카고에서 조소와 뉴미디어를 전공했으며 뉴욕, 시카고, 서울 등에서 사진, 설치, 공공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가 빚어내는 비언어적 소통에 주목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탐구한다.

특별히 작가는 우리가 어렸을적 한번쯤 해보았을 '게임'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과 그 관계들을 포착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가-작품-관객 사이의 흥미로운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파생되는 감정의 파편들은 공간 속을 부유하게 된다.

예술가 자신이 갖는 타인과의 관계는 예술작품에 온전히 담겨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타인의 생각과 얽혀진다. 이것은 마치 대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은선은 이렇게 예술작품을 매개로 타인과 공존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Lee Eunsun

Lee Eunsun (b.1978) majored in sculpture and new media in Korea and Chicago, and has shown various works such as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public projects in New York, Chicago, and Seoul.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e non-verbal communication created by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people and explores the images derived from it.

In particular, the artist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hrough the "game" that we played at least once when we were young, and captures the moments and relationships we share with others. This interesting miss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the artwork and the audience is made intuitively and sensibly, and the fragments of emotion derived from it float in the sp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 herself and others is completely contained in the work of art and is intertwined with the thoughts of other people who experience it. This is similar to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conversation. Lee Eunsun is interested in expanding the area of coexistence with others through art works.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층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일 휴관  
2F 14 Apgujeong-ro 71-gil, Gangnam-gu, Seoul  
Mon-Fri 10am~6pm, Sat 10am~5pm, closed on Sun

tel. 02-540-4853  
email: info@galleryplanet.co.kr  
homepage: www.galleryplanet.co.kr  
instagram: @galleryplanet  
facebook: www.facebook.com/galleryplanet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 ON 2020.10.15-10.27

10:39am

2015  
Pigment print  
75×160cm  
ed.4/5

4,000,000 KRW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ON 2020.10.15-10.27

## Blue Scrape paper

2014  
Pigment print  
92×59 cm  
ed.1/5

2,0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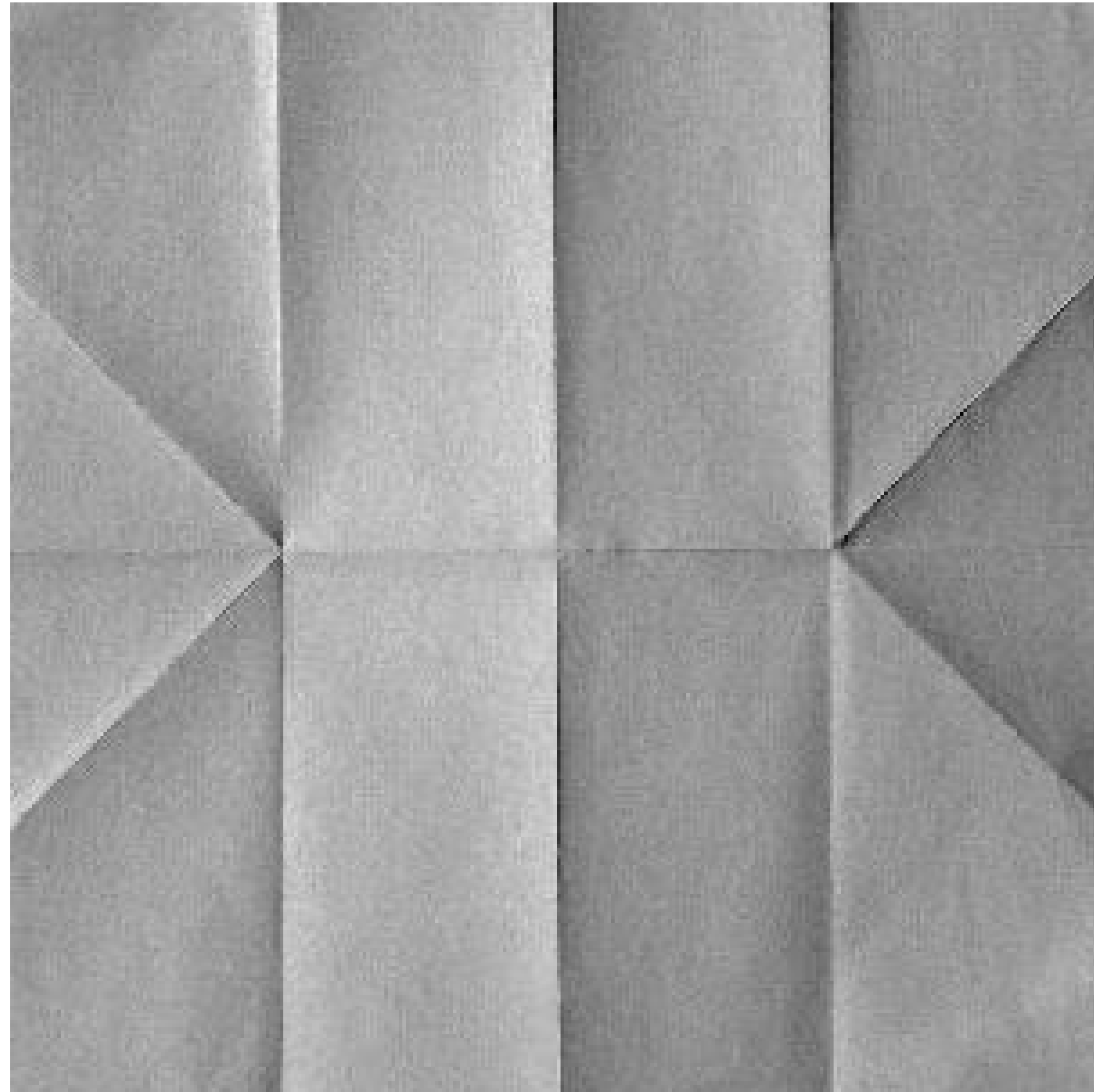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 ON 2020.10.15-10.27

## House

2017  
Pigment print  
100×100cm  
ed.1/5

4,000,000 KRW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 ON 2020.10.15-10.27

## Vengeful

2017  
Pigment print  
150×109cm  
ed.1/5

4,000,000 KRW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 ON 2020.10.15-10.27

## Clover

2017  
Pigment print  
100×100cm  
ed.1/5

1,500,000 KRW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 SOLO SHOW: ON 2020.10.15-10.27

갤러리2

GALLERY  
2

손동현

Donghyun Son

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갤러리2, 송은 아트스페이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등에서 개인전 개최.  
2015년 제 15회 송은 미술대상 대상(송은문화재단),  
201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수상.

DONGHYUN SON [b. 1980 Seoul, Korea] had Solo shows at SongEun ArtSpace, Seoul<sup>2017</sup>; GALLERY2, Seoul<sup>2015</sup>;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sup>2014</sup>. He received Today's Young Artist Awar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up>2017</sup> and The 15th SongEun Art Award Grand Prize by Songeun Art and Culture Foundation<sup>2015</sup>.

갤러리2가 <솔로쇼:온>에서 선보이는 손동현의 작품은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표구할 것인가 혹은 그림을 마무리/표구하는 방식을 작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5점의 작품은 부채, 두루마리, 족자, 화첩, 다소 변형된 형식의 화판 등 각기 다른 표구 방식을 보여준다. <Sulaco>는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함선이다. 작가는 접었다 펼치는 부채를 보고 SF 장르에서 공간/거리를 압축시키며 이동하는 우주선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는 만화 <드래곤볼 Z>를 참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만화에 등장하는 사이어인(우주의 소수민족)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들과 지구의 전사들이 수련하는 장소들이 담겨 있다. 선형적 서사를 가진 만화를 참조한 만큼 길게 펼쳐진 두루마리 방식으로 표구되었다. <To Be Titled 02>는 인물화의 형식으로 다른 그림들의 기법 등을 실험한 첫 작업이다. 산수화의 준법/필법 등을 적용해 만든 실험적인 만큼 화판이 아닌 족자를 이용하여 보다 더 전통적인 표구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Elastic Fist>는 펼치고 닫을 수 있는 화첩이라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작업으로, 중앙의 인물이 뻗은 주먹이 화첩을 양쪽으로 펼치면 펼칠수록 늘어나는 그림이다. <People People>은 인간의 형상을 다양한 필획으로 담아온 근현대의 수묵 작업을 참고하여 '인간으로 이뤄진 인물'을 표현했다. 단순한 120호 화판에 그림을 붙인 것이 아니라 120호 화면보다 위아래를 조금 늘린 화판에 붙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단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는 다른 그림들과 연결해서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세워서 병풍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onghyun Son's exhibition Solo Show: On presented by GALLERY2 is concerned with how each painting will be finished and expressed, or how methods of finish and expression can be practiced in each painting. As such, the five presented works utilize expressions from fans, scrolls, hanging scrolls, picture books, somewhat modified drawing boards. <Sulaco> is a fictional spaceship and important setting in the film Aliens. Son explains that the handheld folding fan reminded him of spaceships in science fiction capable of "folding space" to travel long distances. <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 references aspects of Japanese anime television series <Dragon Ball Z>. The painting features scenes of Saiyans (extraterrestrial warrior race at the brink of extinction) from the anime series invading Earth while earth's warriors train at a special training facility to improve their chances against the invading force. The painting is presented in horizontal scrolling fashion to reflect the linear narrative structure of the anime's storyline. <To Be Titled 02> is the artist's first step into borrowing techniques from diverse paintings into the form of a portrait. It uses a variety of sansuhwa techniques including junbeop (皴法 - ink shading/cracking) and pilbeop (筆法 - writing) and the artist chose to present it as a scroll, rather than as drawing board. <Elastic Fist> maximizes the folding picture book format, stretching the figure's thrown punch further out as the panels unfold both ways. <People People> captures the form of a "person composed of humanity" with reference to the diverse brush techniques of sumuk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The work is attached to a canvas board slightly taller than the standard 120-size designator (193.9x130.3 cm) with the rest finished in silk so it can be connected to other paintings to hang on the wall or stood on the floor via a folding screen.

갤러리2: 손동현

서울 종로구 평창길 204  
화-토 오전 10시~오후 7시, 일, 월 휴관  
204 Pyungchang-gil Jongno-gu, Seoul  
Tue-Sat 10am~7pm, closed on Sun, Mon

tel. 02-3448-2112  
email: info@gallery2.co.kr  
homepage: www.gallery2.co.kr  
instagram: @gallery2

# SOLO SHOW: ON 2020.10.15-10.27

Sulaco

2012

Folding fan, ink and color on paper

φ29.5 cm



갤러리2: 손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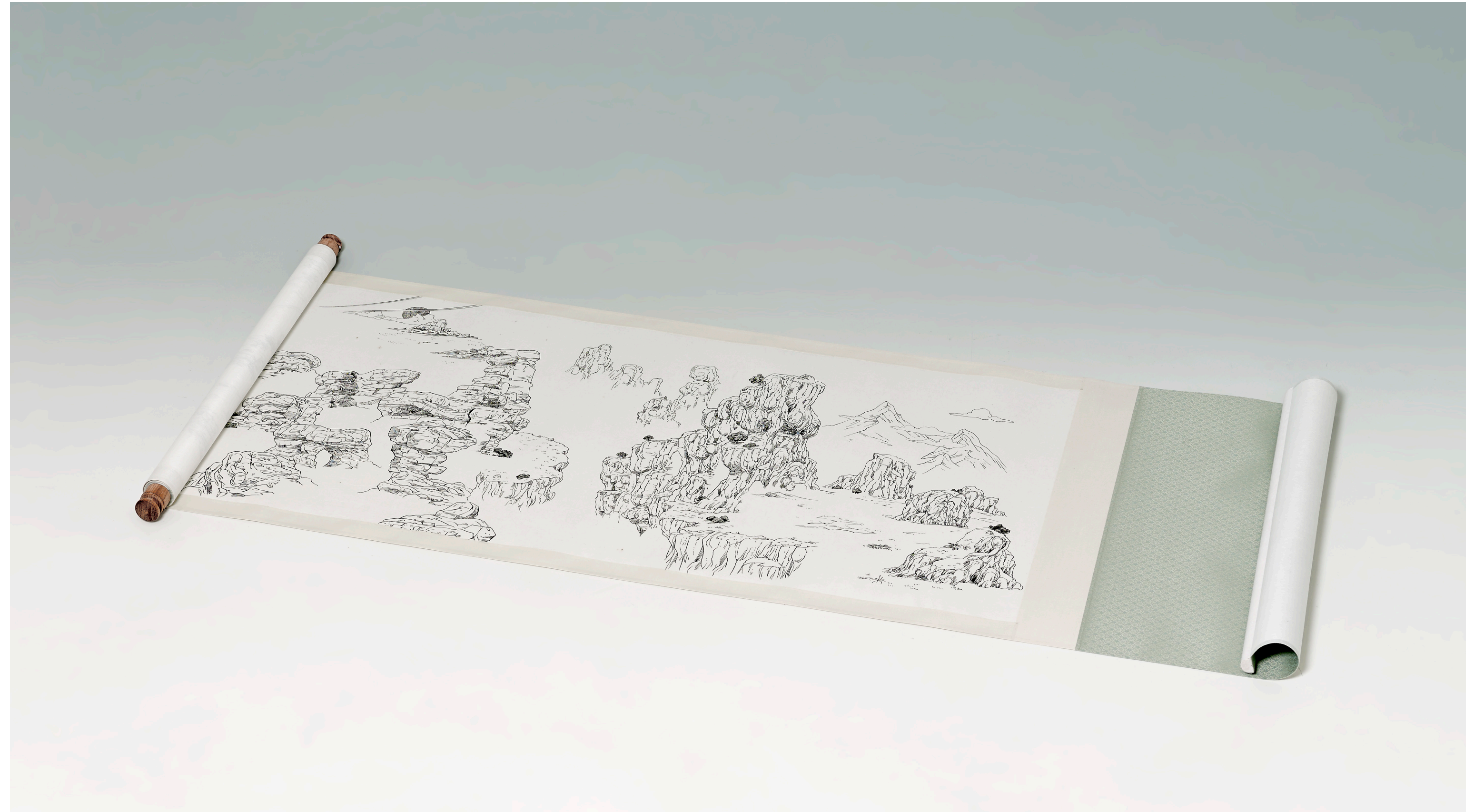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 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

2013

Handscroll, ink on paper

48.5×120 cm



갤러리2: 손동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 To Be Titled 02

2014  
Ink and color on paper  
100.5×48.5 cm



갤러리2:손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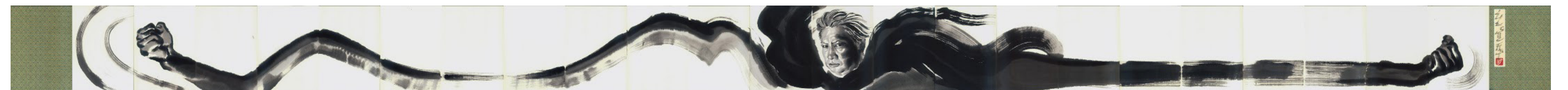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 Elastic Fist

2017

Ink on paper

32×23cm(Total 23 pages, Album)



갤러리2: 손동현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eople People

2019-2020  
Ink on paper  
194×130 cm(212×130 cm)



갤러리2: 손동현



# SOLO SHOW:ON 2020.10.15-10.27

## 갤러리 이알디

# ERD

## 함미나

함미나 작가는 계원예술대학을 공간연출학 전공하였으며, 일곱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을 거쳐 여덟번째 개인전을 갤러리 이알디 부산점에서 진행한다. 작가에게 있어 예술이란 장르구분 없이, 계속 마음이나 머릿속에 많이 머물러 있고 계속 기억에 남으며, 좋은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어떠한 감정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여운을 주는 것들이 모든게 다 예술인 것 같다. 또한 본인의 작업을 할 때도 그런 감정이 제일 많이 투영 되고 작업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것들에서 애정이 가고 계속 보듬어보게 되는것 같다.

이알디 부산점에서 진행되는 'Where would I be' 이번 전시는 작가가 잦은 전학생들과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동해에서 눈이 내리지 않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느낀 바다 풍경과 지역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까지 작가가 성인이 되어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에서 느낀 점을 작업으로 표현한 전시이다. 작업에서 표현되는 주인공의 모습들은 아이들이고 유년시절 바닷가에서 생활했을 때의 느낀점들을 주제로 작업에 투영 되어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들은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서 해서 작업에 많이 표현되어간다.

## Mina Ham

Mina Ham majored in Dramatic Space Creation at Kaywon art university, and after having several solo/group shows, she is now presenting her eighth solo exhibition at Galerie ERD Busan. To Ham, art is a residue from something that constantly remains in her heart and surrounding scenery. Whether it is positive or negative, every lingering imagery from her emotion is considered art. Her emotions get projected and attached to her work the most when she immerse herself in the act of painting.

Ham's new exhibition 'Where would I be' at Galerie ERD Busan spotlights her feelings and experience from her frequent school transfer, also from the changing scenery and unlikable settlement by moving from snowy city Donghae to waterfront city Busan. In Ham's work, the protagonists are mostly children, with a theme of childhood scenery on the beach. The momentary feelings she had was expressed on the canvas with her reinterpretation.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13가길 25

월-금 오전 10시~오후 7시, 토 오후 12시~오후 7시, 일, 공휴일 휴관

25, Hoenamu-ro 13ga-gil, Yongsan-gu, Seoul

Mon-Fri 10am~7pm, Sat 12pm~7pm, closed on Sun

## 갤러리 이알디 부산

### GALERIE ERD BUSAN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2. 대림맨션 305호

수-일 오전 10시~오후 7시, 월, 화 휴관

Daelim Mansion #305

302,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Wed-Sun 10am~7pm, closed on Mon, Tue

tel. 02-749-0419 (Seoul), 070-4115-0419 (Busan)

email: art@galerieerd.com

homepage: www.galerieerd.com

instagram: @galerie\_e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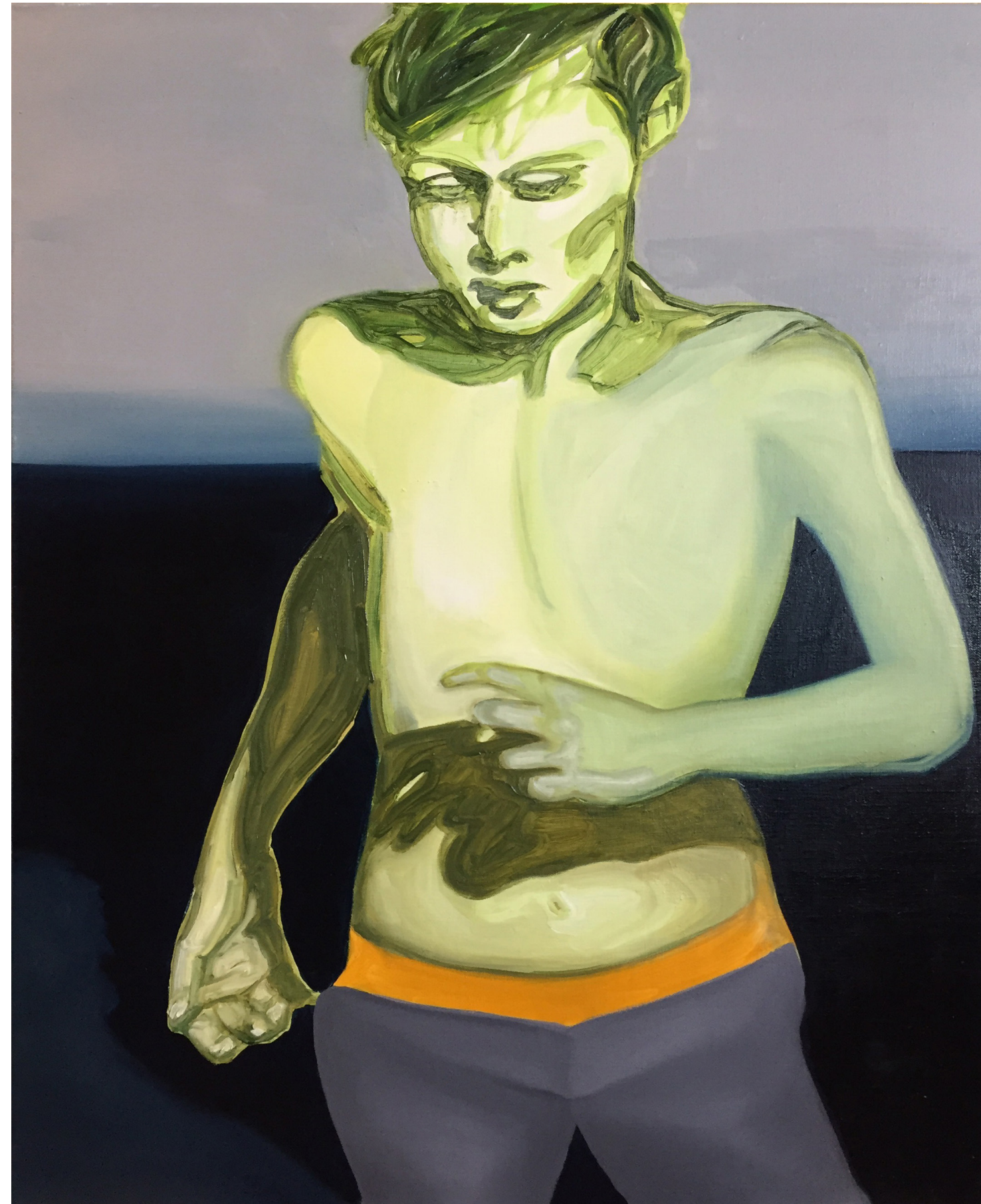
# 갤러리 이알디 : 함미나

# SOLO SHOW:ON 2020.10.15-10.27

night flying<sup>1</sup>

2020  
Oil on canvas  
65.1×80.3cm

1,250,000 KRW



갤러리 이알디:함미나

# SOLO SHOW: ON 2020.10.15-10.27

night flying<sup>2</sup>

2020  
Oil on canvas  
65.1×80.3cm

1,250,000 KRW



갤러리 이알디:함미나

# SOLO SHOW:ON 2020.10.15-10.27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sup>1</sup>

2019  
Oil on canvas  
53.0×45.5cm

500,000 KRW



갤러리 이알디:함미나

# SOLO SHOW: ON 2020.10.15-10.27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sup>2</sup>

2019  
Oil on canvas  
46.0×37.5cm

500,000 KRW



갤러리 이알디:함미나

# SOLO SHOW:ON 2020.10.15-10.27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sup>3</sup>

2019  
Oil on canvas  
45.0×45.0cm

500,000 KRW



갤러리 이알디:함미나

# SOLO SHOW:ON 2020.10.15-10.27

##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KIM, Sung woo

represent

CHOI, Goen

## 최고은

최고은의 작업은 종종 미니멀한 조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조각은 백색가전이라 일컫는 에어컨, 냉장고 등 일련의 일상적 사물이나 특정 물질을 대체하는 산업 재료, 그리고 도시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이러한 사물, 또는 물질을 해체, 변형, 재조합하거나, 주어진 공간을 점유하고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생활 양식이나 취향 등 우리가 보편이라 일컫는 형태와 규격의 외피 아래 존재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살핀다. 이렇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질문은 곧 그것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장한다.

주요 개인전으로 <Disillusionment of 11am> (토마스파크 갤러리, 뉴욕, 2019), <오렌지 포디움> (시청각, 2018), <토르소> (김중영미술관, 2016) 등을 개최했으며, <아나모르포즈 :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WESS, 2020), <리얼-리얼시티> (아르코미술관, 2019), <불안한 사물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19),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아트선재센터, 2018)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 CHOI Goen

CHOI Goen is a sculptor, and her artworks mainly show minimal forms of sculpture. Her sculptures begin from a series of everyday objects, such as an air conditioner or refrigerators, or industrial materials that replace materials in certain purpose, and urban spaces that have already become deeply involved in our lives. CHOI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underneath forms and standards we commonly refer to, such as lifestyle or taste, in a way of deconstruct, transformation, reassembling such objects, or occupying given spaces. Her question about how the things exist today extends to how we live and how we are regulated today.

CHOI Goen had solo exhibitions including Disillusionment of 11am (Thomas Park Gallery, NY, 2019); Orange Podium (Audio Visual Pavilion, 2018); Torso (Kim Chong Yung Musum, 2016),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Anamorphose : Depict but Blurry, Distant but Vivid (WESS, 2020); REAL-Real City (ARKO Art Center, 2019); The Unstable Objects (Seoul Museum of Art, Nam-Seoul, 2019); Point Counter Point (Art Sonje Center, 2018)

김성우는 큐레이터로서 주로 전시를 기획하고 동시대 미술에 관한 글을 쓴다. (비)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비)가시적인 미술의 실현 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하며, SOLO SHOW를 통해 상업적 목적 아래 실행되는 미술 생태의 일각을 살피고자 한다. 이번 SOLO SHOW : ON에서는 조각을 바탕으로 공간 설치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확장해온 최고은 작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KIM Sung woo is a curator, mainly focusing on curating exhibition and writing about contemporary art. KIM examines the feasibility of (non)visual art on the basis of physical and non-physical conditions. By participating in SOLO SHOW, he would like to look at a glimpse of the art ecology operating by commercial purpose. At SOLO SHOW : ON, KIM represents CHOI Goen who works on singular sculptural work.

www.instagram.com/kim.xx.choi

email: kim.xx.choi@gmail.com(작품 상세정보, 가격 및 쇼룸 방문일정 문의)

instagram: @kim.xx.choi

#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 최고은

# SOLO SHOW:ON 2020.10.15-10.27

수지 D  
Suzy D

2019  
폴리프로필렌, 인조 대리석  
Polypropylene, artificial marble  
32.4×54.2×16.3cm, 28×28×70cm

5,0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 **최고은**



# SOLO SHOW:ON 2020.10.15-10.27

토르소  
Torso

2016  
거울, 3단 신발장  
Mirror, 3-shelf shoe case  
86×100×29.5cm

1,8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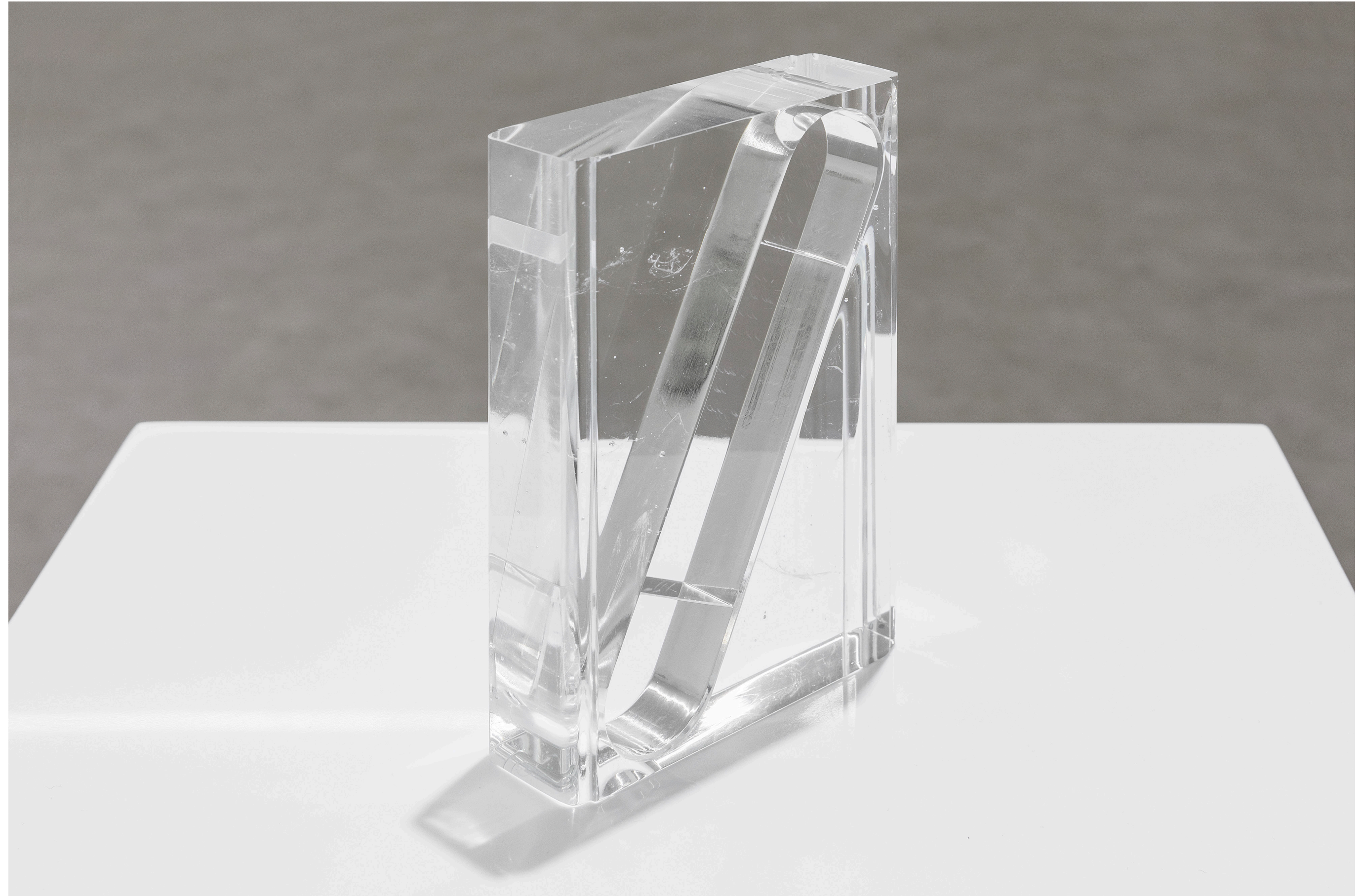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 **최고은**

# SOLO SHOW:ON 2020.10.15-10.27

케미칼 85  
Chemical 85

2020  
소니 WM-101, 유리, 아크릴  
SONY WM-101, glass, acrylic  
13×8.6×2.8cm

1,8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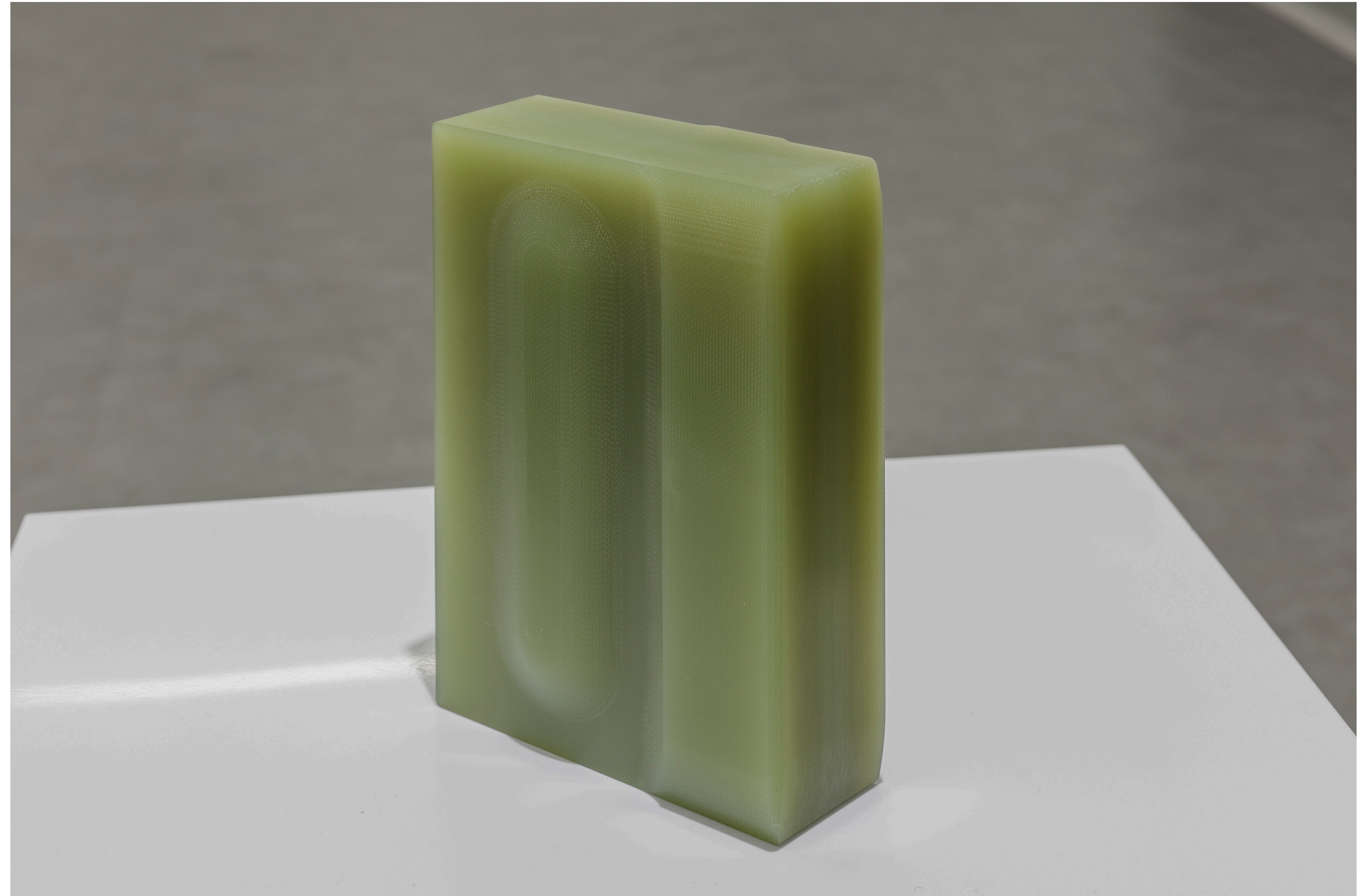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최고은

# SOLO SHOW:ON 2020.10.15-10.27

케미칼 89  
Chemical 89

2020  
아이와 HS-PL505, 에폭시 글라스  
AIWA HS-PL505, epoxy glass  
13×9.2×3.3cm

1,8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 **최고은**

# SOLO SHOW: ON 2020.10.15-10.27

상들리에: 말룸보  
Chandelier: Malumbo

2020  
무라노 스튜디오 보헤미안 크리스탈 상들리에  
Murano studio bohemian crystal chandelier replica,  
synthetic diamond 10 thousand carats  
80×70×70 cm

10,000,000 KRW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 최고은

# SOLO SHOW: ON 2020.10.15-10.27

디스위켄드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8, 2층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 휴관  
2F, 8 Yeongdong-daero 142-gil, Gangnam-gu, Seoul  
Tue-Sun 11am~7pm, closed on Mon

tel. 070-8868-9120  
email: roomandgallery@gmail.com  
homepage: www.thisweekendroom.com  
instagram: @twr\_project

최지원

어떤 대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글. 이가현 (Eazel Curator), 2020

...  
가을이 끝날 무렵부터 작가는 도자기 인형을 닮은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형상을 한 도자 장식품이 가지는 매끈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인물에 덧붙여 그리기 시작했다. 쉽고 가볍게 소비된 후 신속하게 폐기되는 '요즘의' 감정들을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는 아름답지만, 부주의하면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도자기 인형의 시각적 특성을 대상에 입혀, 폭죽이 터져도 반응하지 않고, 으스스한 숲길에서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무감각한 표정의 인물들을 그려냈다. 작가가 도자기 인형의 제작 공정이나 물성을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걸 그녀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단지 고민한 것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고민을 거쳐 탄생한 작가의 '매끈하게 빛나는 도자기 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그녀가 그리고자 했던 바로 그 '요즘의' 감정을 충실히, 그리고 영리하게 전달한다.

최근 몇몇 전시에서 본 젊은 회화 작가들이 (그들의 그림이) '사건'과 '현상'으로부터의 인상에 몰두하며, 매체 자체보다는 매개체로서 화면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지원 작가는 회화라는 매체와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페인터'에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소위 말하는 '요즘 작가들의 트렌디한 그림'과는 거리가 먼데, 오히려, 그녀가 매체와 화면에 가지는 태도와 책임감은 선배 작가들의 그것을 닮아 있다.

...  
'어떤' 대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나, 이 기본을 마음 써 고민하는 작가의 그림엔 발걸음을 잠시나마 묶는 당김이 있다. 앞으로도 최지원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그때 그때의 대답들을 관객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그 대답과 대답이 쌓이고 쌓여, 더욱 더 단단해질 그녀의 다음 화면들이 기대된다.

Jiwon Choi

How to paint and what to paint  
Amy Gahyun Lee (Eazel Curator), 2020

...  
Choi started to paint ceramic dolls-like figures since last autumn nearly comes to an end. To be more specific, she added smooth and glossy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een in surfaces of human-shaped china doll to her figurative paintings. The artist wants to depict emotions of people in 'these days' where everything is consumed easily and lightly and disposed quickly. She has added visual characteristics of beauty and fragility that a ceramic doll has into objects and created figures with insensitive expressions who are not frightened by explosion of fireworks and able to dully walk even in the deep and dark forest. The artists did not particularly study production process or prosperities of material in depth. To be honest, these are not essential parts of her concerns. 'How to paint was the only concern she had, and it gave birth to 'smooth and glossy ceramic doll figures' which deliver emotions of 'these days' in full and smart manners.

I have witnessed in recent exhibitions that young artists tend to indulge in showing impressions from 'incidents' and 'phenomena' (in their paintings) and treat canvas not as a medium itself but rather an instrument. However, Choi focuses more on painting as a medium, and act of painting, thereby identifying herself more as a 'painter'. Her works are far from 'trendy paintings of young artists in her age'. Rather, her attitude and responsibility toward medium and canvas are closer to those of senior artists.

...  
How to paint and What to paint. It may sound like an obvious concern that every artist should have, but there is some special attraction from the works of Choi who always keeps this basic in mind. She will be exhibiting her works to the audience as an answer to her question. Much expectation is given to her canvas that will be more mature and stronger as we have more answers from her.

##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 ON 2020.10.15-10.27

스파크  
spark

2019  
Oil on canvas  
90.9×72.7 cm

2,2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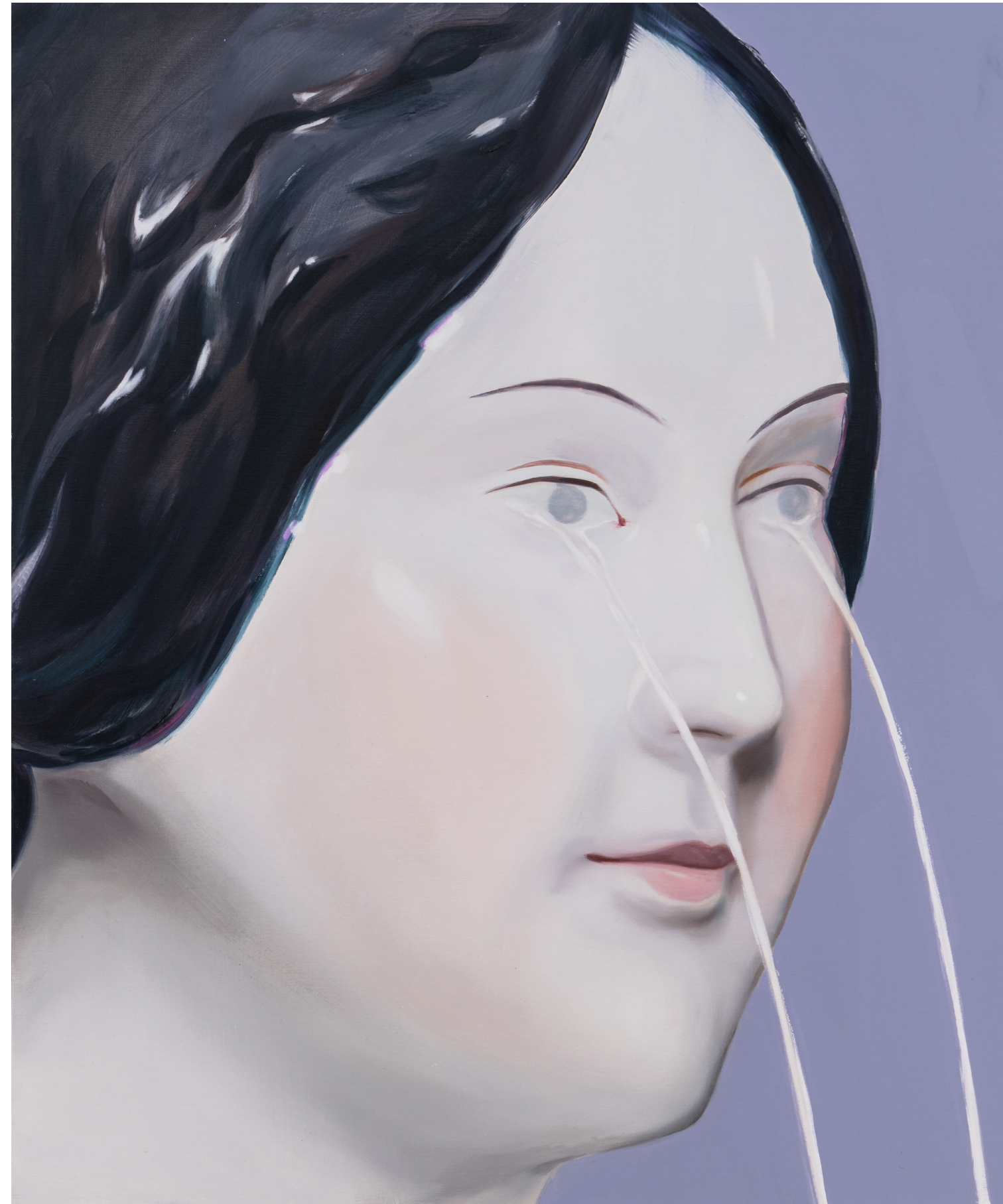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ON 2020.10.15-10.27

우는 여인  
the crying woman

2019  
Oil and acrylic on canvas  
72.7×60.6 cm

1,800,000 KRW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 ON 2020.10.15-10.27

untitled

2019  
Oil on canvas  
116.8×116.8cm

2,800,000 KRW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 ON 2020.10.15-10.27

beads

2020  
Oil on canvas  
40.9×53cm

1,000,000 KRW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 ON 2020.10.15-10.27

가시창을 든 여인  
Woman with a thorn sword

2020  
Oil and acrylic on canvas  
145.5×97 cm

가격: 갤러리에 문의  
Price: Contact gallery



디스위켄드룸 : 최지원

# SOLO SHOW: ON 2020.10.15-10.27

## 백아트



## 임소담

임소담은 그림을 그리기 이전 모든 대상(이미지, 자연현상, 사건, 꿈, 내러티브 등)을 무의식 상태로 저장한 후, 기억된 편린들을 끄집어내어 예측 불가능한 그림을 표현해왔다. 작가는 무의식 상태로 향하는 기억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다년간 스냅사진을 활용해왔지만,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순간, 그의 깨달음은 그가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익숙함과 낯 설음'의 공존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에 이르렀고, 이 시도는 우연한 계기로 접했던 도자 매체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후, 도자와 회화 두 매체가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실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상상하고 실현시킴으로써 두 영역의 다른 감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눈으로 보는 2차원의 시각에서 촉감으로 전해지는 3차원의 공감각으로, 동시에 프레임 밖에서 여러 시점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경험했던 사건과 내러티브 그리고 감정은 실재하는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추상의 이미지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겪는 변화의 태도는 평면과 입체, 시각과 촉각 그리고 기억과 형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율성을 획득한다.

## Sodam Lim

Before painting, Sodam Lim has saved all objects (images, natural phenomena, events, dreams, narratives, etc.) in an unconscious state, and then pulled out the memorized pieces to express an unpredictable painting. The artist has been using snapshots for many years to capture the clues of the memories heading to the unconscious state, but at some point, she hit a wall. At the moment, her enlightenment came to the realization of the coexistence of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which she had long been the subject of interest in. She uses ceramic as an important medium to this attempt.

Afterwards, ceramics and painting are organically connected without boundaries, and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o different senses of the two areas by imagining and realizing non-existent structures was confirmed. As a result, he extends from the two-dimensional view to the three-dimensional synesthesia that is transmitted from the eye to the touch,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to several perspectives outside the frame. Thus, experienced events, narratives and emotions emerge as an unexpected image of abstraction through a variety of real objects, and the attitude of chang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acquires autonomy that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sight and touch, memory and shape.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팔판길 42번지  
화-일 오전 11시~오후 6시, 월 휴관  
42, Palpan-gil, Jongno-gu, Seoul  
Tue-Sun 11:00am~6pm, closed on Mon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가능합니다.  
Viewing is available by appointment only.

tel. 010-8029-0420  
email: sandra@baikart.com  
homepage: www.baikart.com  
instagram: @baikartgallery

# 백아트 : 임소담

# SOLO SHOW: ON 2020.10.15-10.27

## Black smoke

2016

Ceramic

22×38×18cm



백아트 : 임소담

# SOLO SHOW: ON 2020.10.15-10.27

## Forest

2016

Ceramic

20×24×17 cm



백아트 : 임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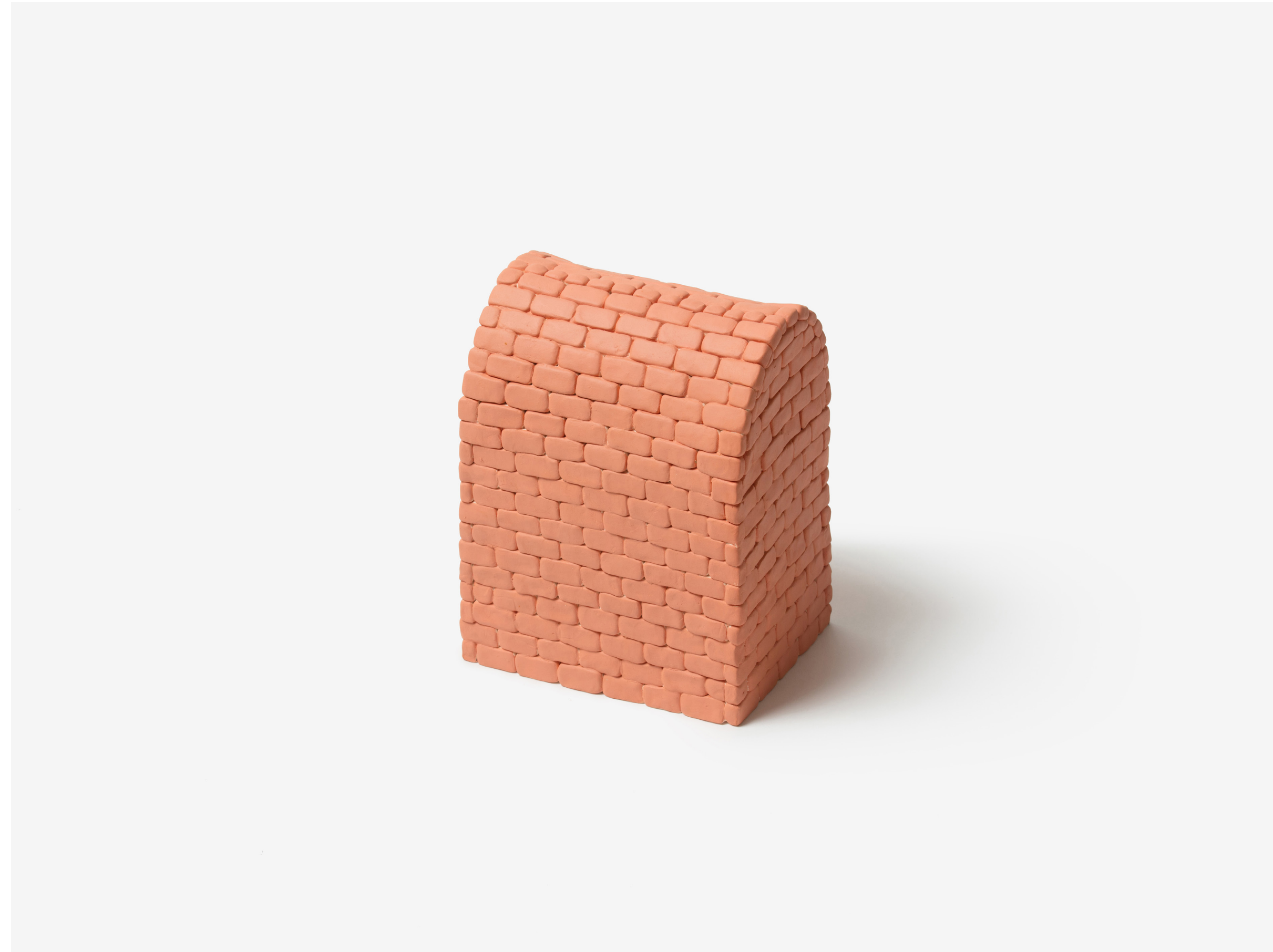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Home

2018

Ceramic

17×14×10cm



백아트 : 임소담

# SOLO SHOW: ON 2020.10.15-10.27

Moss cloud

2013

Ceramic

13×16×16cm



백아트 : 임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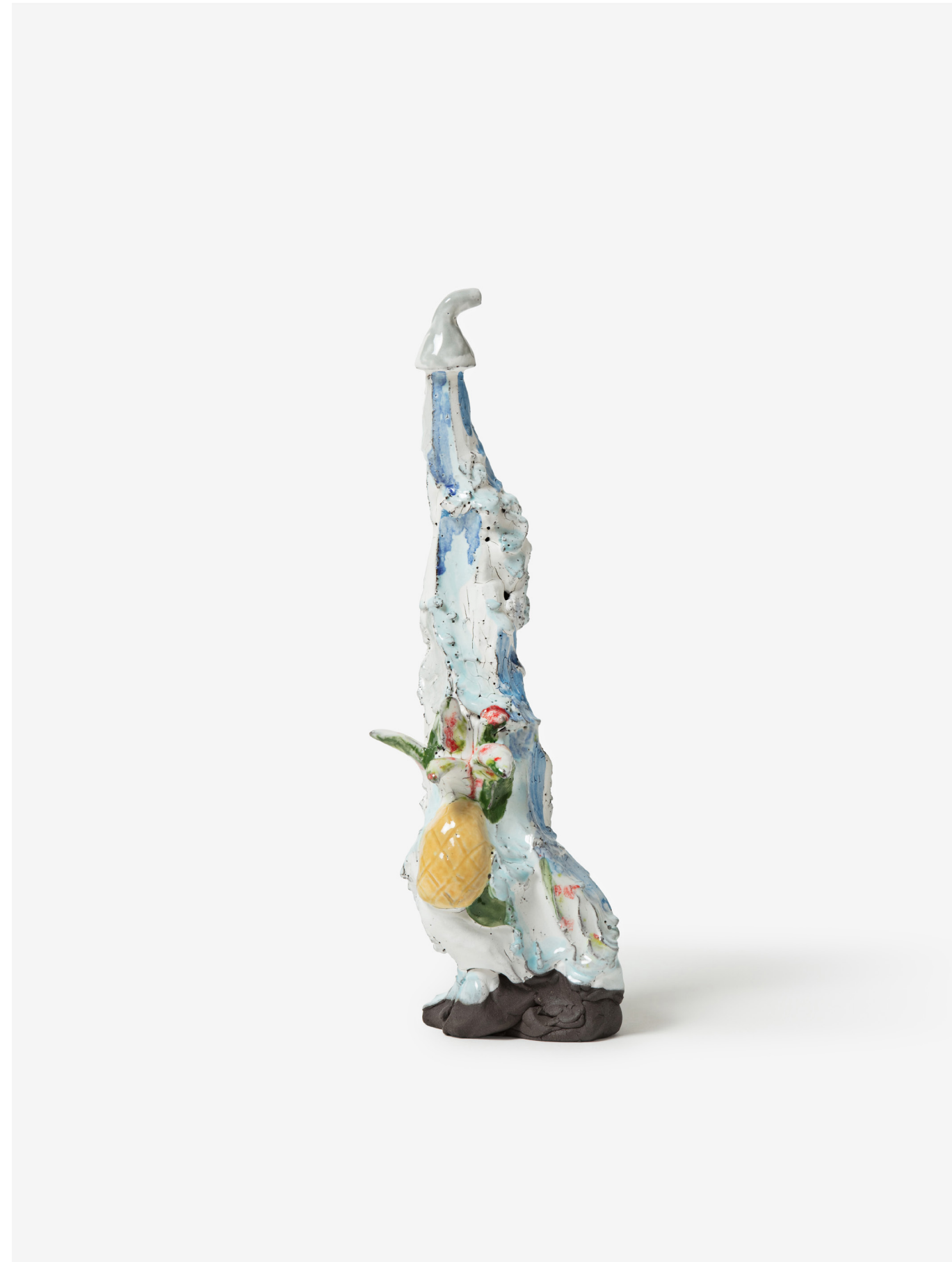
# SOLO SHOW:ON 2020.10.15-10.27

## Shower

2018

Ceramic

24×9×7cm



백아트 : 임소담



# SOLO SHOW:ON 2020.10.15-10.27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백경호 작가는 캔버스를 자신의 사고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여긴다. 회화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공간에서 대상이 제시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작가는 자유로운 화면 구성방식으로 중첩(重疊)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초기에 사용된 기호적 이미지는 유기적 이미지와 어우러져 캔버스 위에 층층이 쌓이면서 독특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전시를 위한 공간 연출을 구성할 때에는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캔버스를 나열하는 분할 스크린 형식의 페인팅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백경호 작가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표면의 질감, 붓을 다루는 신체 움직임의 흔적 등을 캔버스 위에서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회화의 물질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회화를 보다 구조적인 형식으로 다루고자 2019년부터는 입체 형식으로 인간형상을 구축하고 그 표면에 회화작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회화를 시작했다.

백경호 작가는 최근, 체크무늬처럼 가로 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그림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규칙적인 틀 안에서는 사유와 감각이 개입하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가는 화면에 그리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서 자신의 사유와 감각이 어떻게 시각화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있다.

백경호 작가는 1984년 출생으로, 홍익대 회화과 및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공간1 (2012)와 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2019)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평면탐구: 유닛, 레이어, 노스탤지어>(일민미술관 2015), <두렵지만 황홀한>(하이트컬렉션 2015),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아뜰리에 에르메스 2017), <원더랜드>(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17) 등 주요 기획전에 다수 참여했다.

## Baek Kyungho

Baek Kyungho treats canvas as a space for experimenting with his own thinking. He has been constantly studying the ways in which they appear in space, with various attempts at the essence of painting. The artist shows superimposed images in composition. The symbolic images used at the beginning are combined with the organic images, creating a unique narrative by layering on the canvas. In this process Kyungho Baek maximizes the materiality of painting by boldly employing bodily movement with brushes against the textured surface. Furthermore, since 2019 the artist has begun a new form of painting where he builds shapes of the human figure in three-dimensions and then paints on their surfaces.

Kyungho Baek's recent paintings feature the intersections of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like a check pattern. This subverts the general perception that it is difficult for reason and sensibility to intervene within a regularly ordered frame. The artist keeps practicing on how his reason and sensibility can be visualized within the picture plane, based on the grid.

Baek was born in 1984. He received a BFA from Hongik University and a M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had solo exhibitions at Space1 (2012) and Space Willing N Dealing (2015, 2019). Baek's work was also shown in group exhibitions like <Crossing Plane: Unit, Layer, Nostalgia> (Ilmin Museum of Art 2015), <Our Awesome Moments> (HITE Collection, 2015), <O philoi, oudeis philos> (Atelier Hermes, 2017), <Wonderland> (Art Center White Block, 2017).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8-1, 201호  
화-일 오후 12시~7시, 월 휴관  
2F, 48-1 Jahamunro, Sonro-gu, Seoul  
Tue-Sun 12pm~7pm, closed on Mon

tel. 02-797-7893  
email: willingndealing02@gmail.com  
homepage: www.willingndealing.org  
instagram: @space\_willingndealing

# SOLO SHOW: ON 2020.10.15-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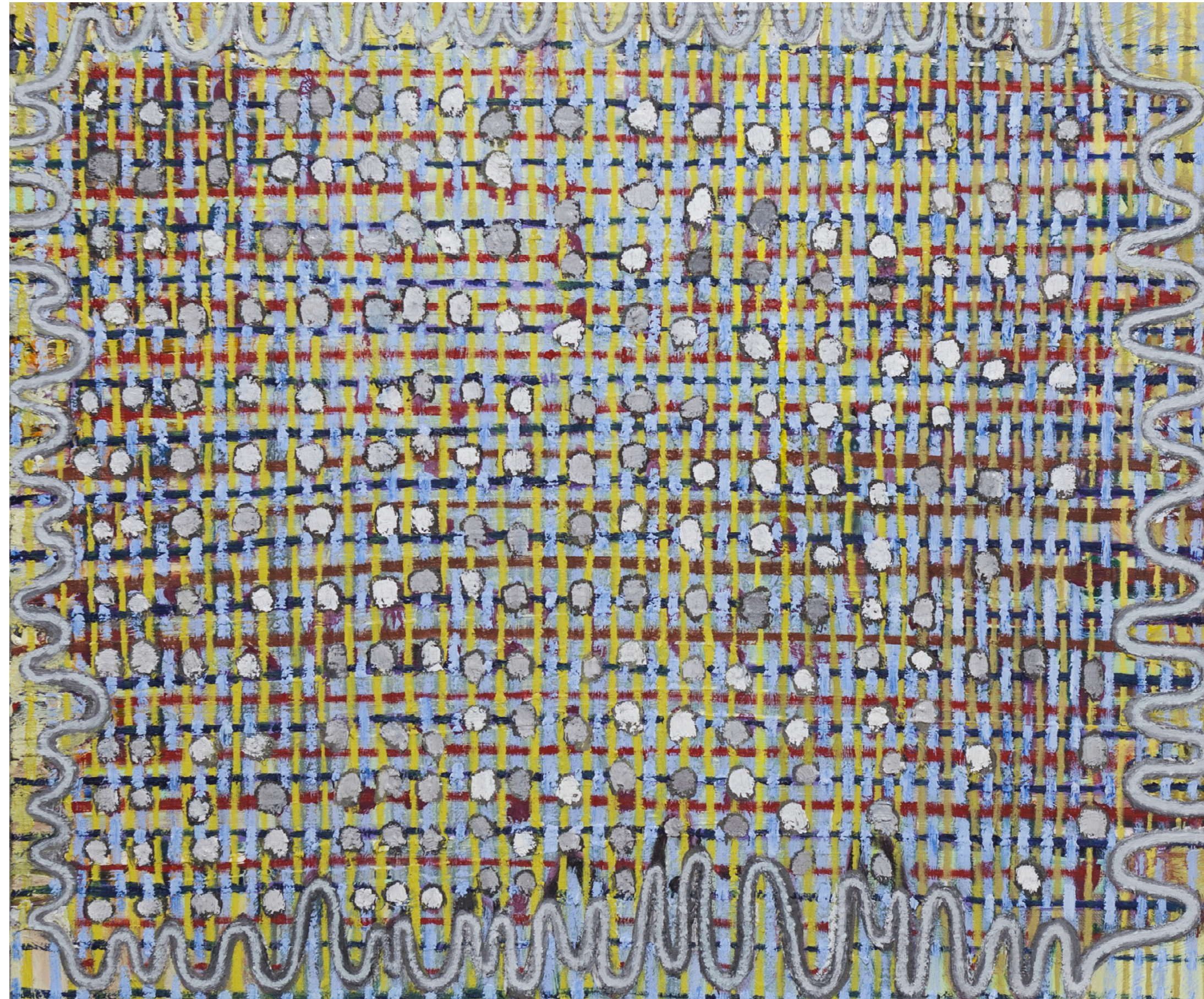
무제

2020

Oil on linen

60.8×72.7cm

1,300,000 KRW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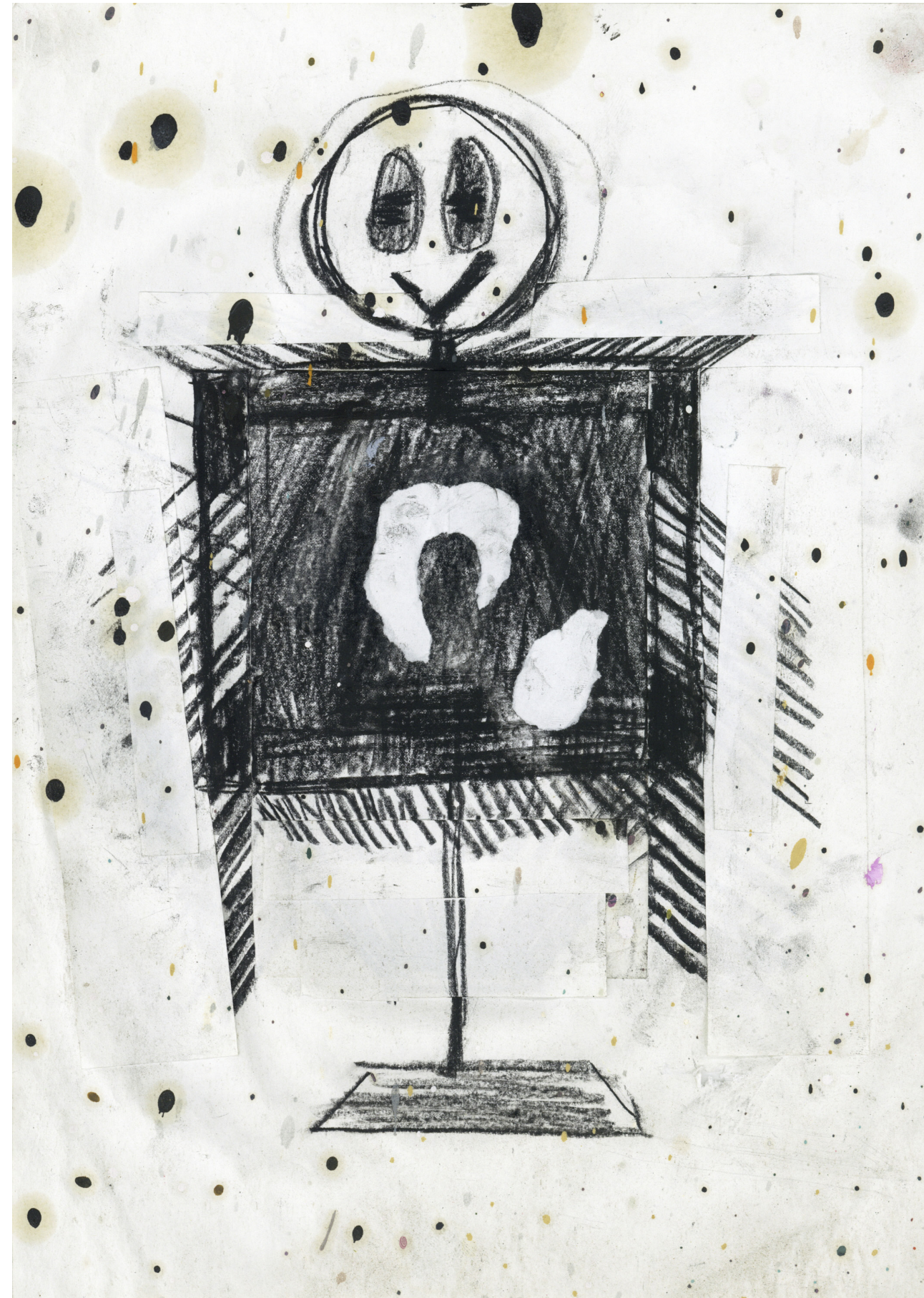
무제

2017

Conte, paper, oil on paper

29.6×20.8 cm

5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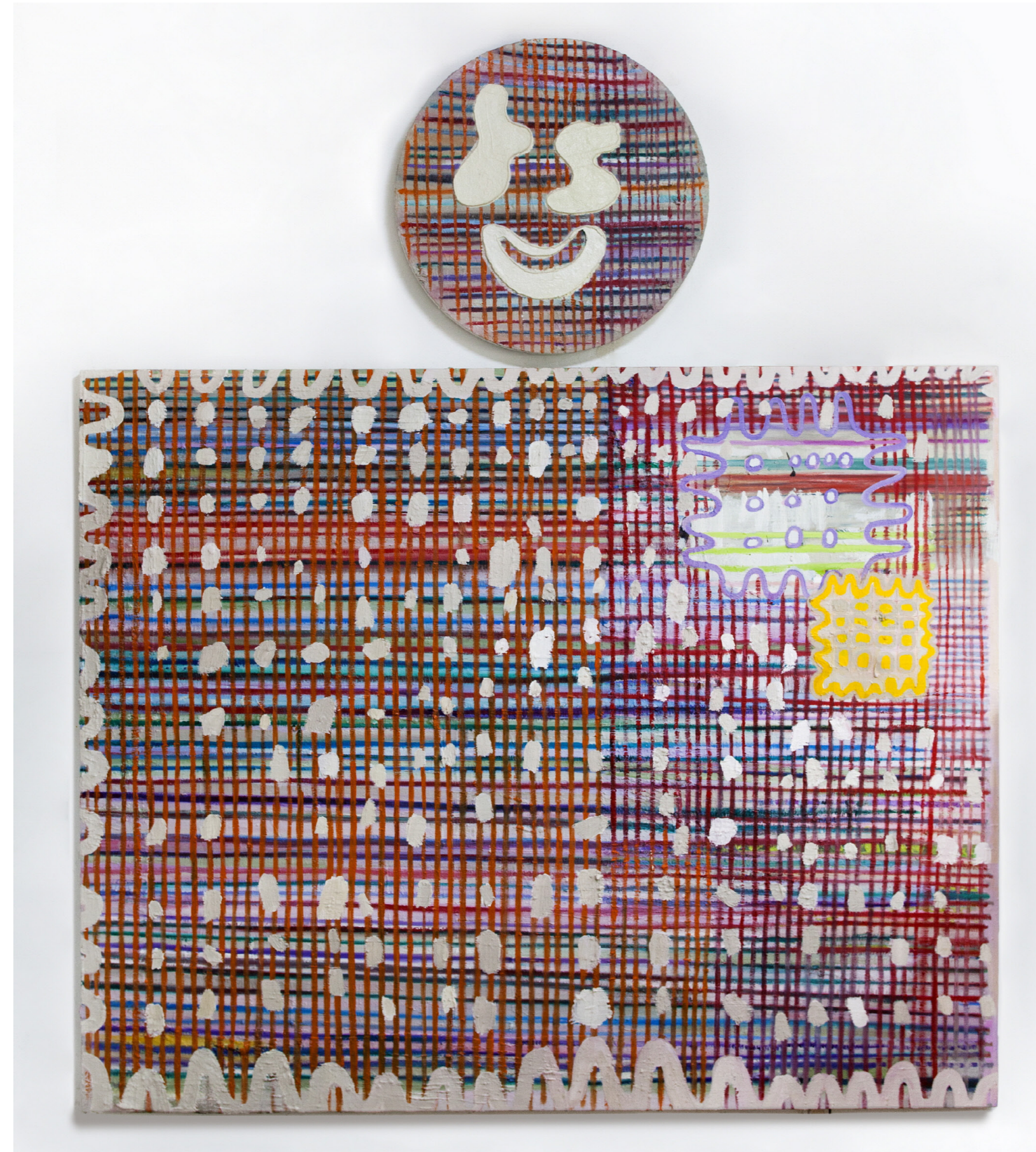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무제

2019  
Oil, cold wax on canvas  
130.3×162.2 cm, dia 55 cm

6,7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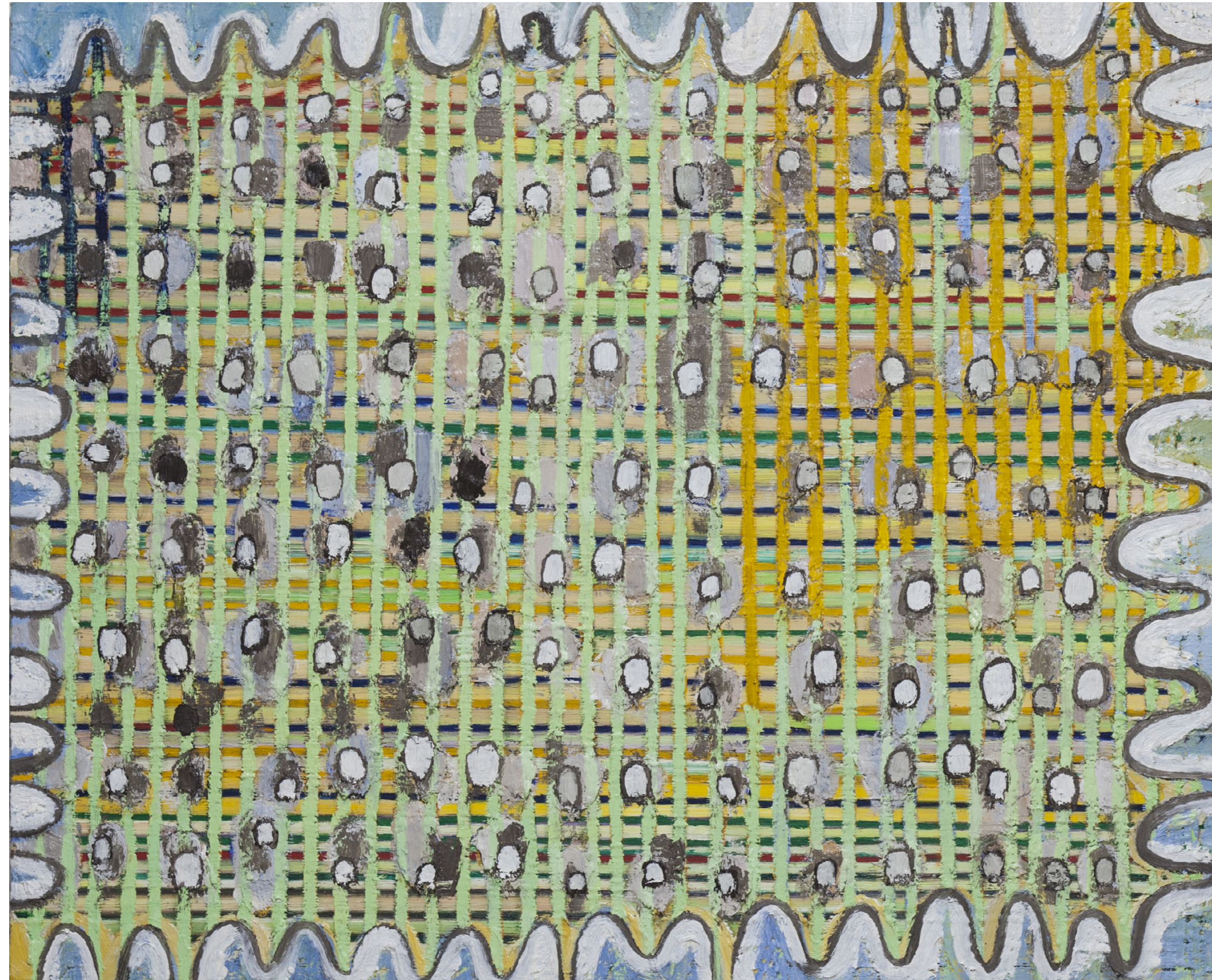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무제

2020  
Oil on canvas  
65.2×80.6 cm

1,500,000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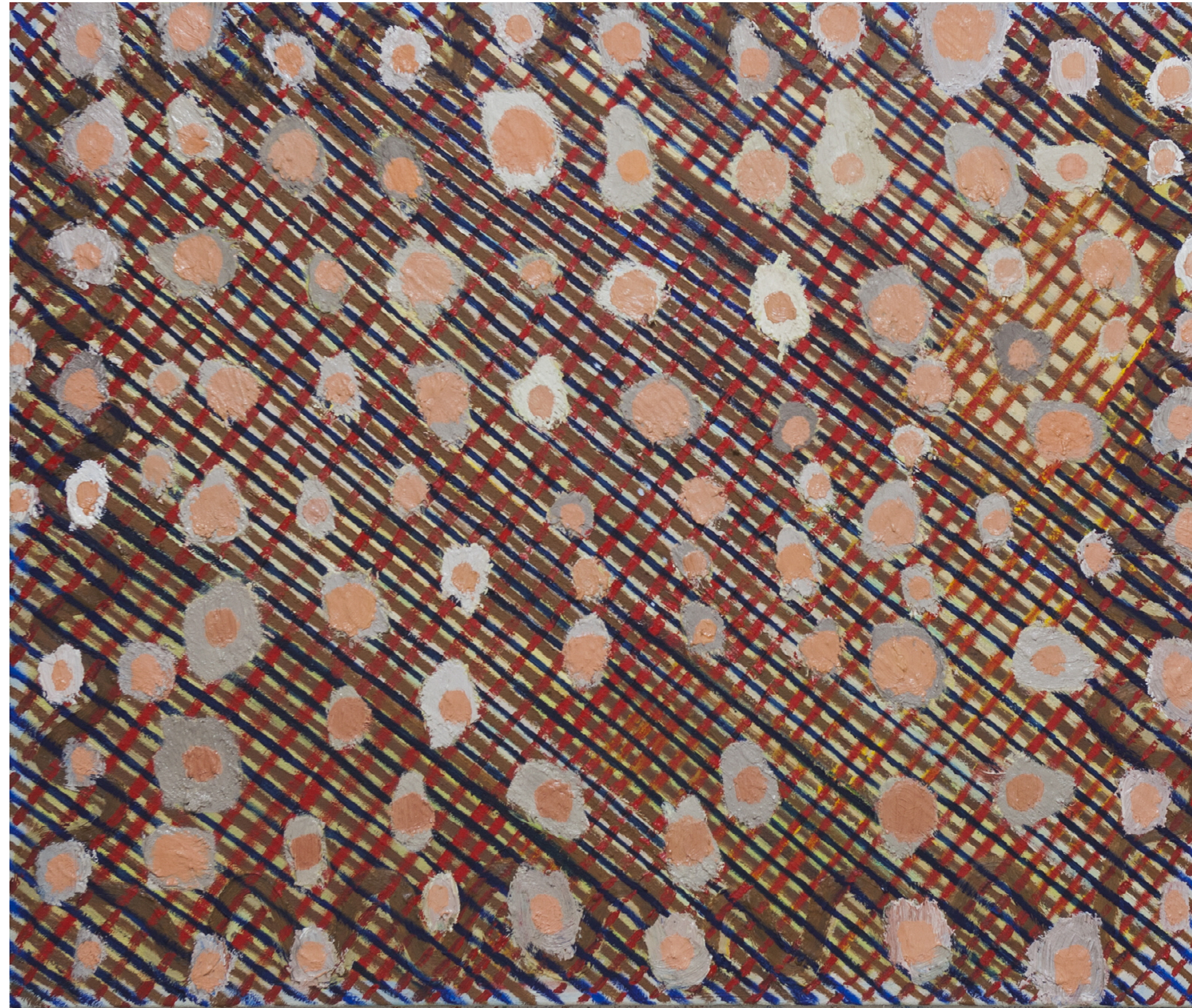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무제

2020  
Oil on linen  
60.7×72.7 cm

1,300,000 KRW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 SOLO SHOW:ON 2020.10.15-10.27

아트사이드 갤러리

ARTSIDE GALLERY

송수민

Song Sumin

송수민은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사건, 주변의 풍경과 사물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이를 재해석한다. 이렇게 해석된 이미지는 감추고 드러냄으로써 다의적으로 확장된다. 작가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이미지를 해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왜곡, 변질되는 생경함에 주목한다. 클로즈업과 롱샷을 오고가며 색감과 채도에 변화를 준다. 이를 통해 이미지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관객의 감정을 직접 건드리는 낯선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이들 이미지는 작가의 작업과 맞물리며 조합과 해체를 반복한다. 때로는 캔버스를 접거나 늘어트리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 가상과 현실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협은 화면에 낯설게 등장하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더욱 강화되며, 이는 너무 빨라 포착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추상성과 닮아있다.

Song Sumin collects images of events she does not experience and images from her surroundings, and interprets them in her own way. The images interpreted this way radiate various meanings, hiding or disclosing some of them. Song pays attention to the unfamiliarity when the images that are produced via media are distorted and altered. She changes their color hue and chroma, and adopts a close-up shot or a long shot. Through these skills, she transforms images, creating an unfamiliar mood that impresses the viewer. Song continuously collects images that our modern society produces to make her work through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Sometimes by folding or stretching out a canvas, she emphasizes the ambiguity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his threat is strengthened by unfamiliar geometric figures that appear on the canvas, and this takes after the abstractness of modern society that is so fast that we can't catch.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6길 15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 공휴일 휴관  
15, Jahamun6gil Jongrogu, Seoul  
Tue-Sun 10am-6pm, closed on Mon

tel. 02-725-1020  
email: info@artside.org  
homepage: www.artside.org  
instagram: @artsidegallery\_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ON 2020.10.15-10.27

## Blooming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90×116.8cm

2,1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 ON 2020.10.15-10.27

## Blooming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40 cm

4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ON 2020.10.15-10.27

## Blue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91×91 cm

2,0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 ON 2020.10.15-10.27

자국\_green line

2020  
Acrylic on canvas  
30×30 cm

3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ON 2020.10.15-10.27

초록리듬

2020  
Acrylic on canvas  
60×60 cm

1,0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 SOLO SHOW:ON 2020.10.15-10.27

Gallery 000JH

## 의외의조합

이동훈

이동훈(b. 1991)은 첫 개인전 《꽃이 있는 실내》(드로잉룸, 서울, 2019)를 개최했으며 《이공간, 그장소: 헤테로토피아》(대림미술관, 서울, 2020), 《호텔사회》(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20), 《눈깜짝할 새》(일우스페이스, 서울, 2020) 《XOXO》(누크갤러리, 서울, 2019) 등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다. 개념적이고 시의적인 방법론을 다루고자 했던 지나친 강박은 작업에 대한 나 자신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회의하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매체와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진 않았지만 노동집약적으로 천천히 작업해 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화가들이 그림을 연습하기 위해 화병을 정물 삼아 그렸던 것처럼, 조각을 연습해보고자 화병을 나무로 깎기 시작했다.

나무를 깎으면서 형태를 찾아가고 색을 입혀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갔다. 이 과정은 재료가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의 판단이 지속해서 형태를 결정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각을 채색하는 방식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 색채는 조각품 내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경계를 구분해주거나 구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 방법에 따라 형태는 이 과정에서 추상과 재현을 넘나든다.

조각가이자 화가인 나는 내게 또 하나의 대상이 된 조각된 화병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를 다루는 방식, 붓과 물감을 다루는 방식은 화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붓과 끌은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그림과 조각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재료의 성질을 의식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내는 유희를, 나는 그림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내 과제는 조각 작업에서 터득한 재료와 표현 방식 간의 개연성을 그림으로써 제시하는 것이다.

Donghoon Rhee

Donghoon Rhee (b.1991)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Room with Flowers at Drawing Room, Seoul<sup>2019</sup> and since then has participated several group exhibitions in Seoul. Donghoon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From 2015 to 2017, I tried to paint in various themes and methods. My excessive compulsion to deal with conceptual and timely methodologies made me question my own conduct and intention to work. I have not dealt with the medium and themes consistently so far, but I have found common ground in working slowly and labor-intensively. Just as painters observed the vase to practice painting and painted still life, I began to carve wooden vase to practice sculpture.

As I carved woods, I found joy in the process of making shapes and coloring them. This carving process has made my judgments and choices that persist within the extent of the material's acceptance to determine the form. And the way I paint sculptures is in line with the way I make paintings. Colors serve to distinguish or eliminate the boundaries of different parts within the sculpture, and depending on the method, the form covers between abstrac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process.

As a sculptor and a painter, I began to paint carved vases that had become another theme for me. The way the canvas is treated, the way the brush and paint are handled, is clear evidence of the painter's attitude. The brush and chisel have different ways of handling, and the painting and sculpture have their own way of being. The amusement that is conscious of the nature of a material and actively utilizes it. I want to embody it through painting. My current task is to present the probability between method of expression and material learned from sculpture work through painting.

## 의외의조합 : 이동훈

서울시 중구 동호로 17길 121  
월-일 오후 12~6시  
121 Dongho-ro 17-gil, Jung-gu, Seoul  
Mon-Sun 12~6pm

tel. 02-2235-3560  
email: ooojh.info@gmail.com  
instagram: @gallery\_000JH

# SOLO SHOW: ON 2020.10.15-10.27

## 긴 고양이

2019  
나무에 아크릴  
187×50×48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 SOLO SHOW: ON 2020.10.15-10.27

## 긴 고양이2

2019  
나무에 아크릴  
182×48×48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 SOLO SHOW: ON 2020.10.15-10.27

## 화병

2020  
나무에 아크릴  
34×51×31 cm

2,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 SOLO SHOW: ON 2020.10.15-10.27

## 화분

2020  
나무에 아크릴  
98×62×5 cm

5,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 SOLO SHOW: ON 2020.10.15-10.27

## 화분1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16.8×182.3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 SOLO SHOW:ON 2020.10.15-10.27

조현화랑

Johyun Gallery

조종성

Jo Jongsung

조종성은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회화과에서 수학했다. 그는 <숨겨진 화가의 시점을 찾아서>(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2006), <개입에 대하여>(금호미술관, 서울, 2008) 등 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8), <Green Utopia>(사비나 미술관, 서울, 2009), <한국화의 이름으로>(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도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크리스티 홍콩 옥션에서 열린 <한국 예술의 서사> 전시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김환기, 정창섭, 박서보, 이우환, 이 배 등 한국현대미술의 주역들과 함께 전시하며 한국현대미술의 대표작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동시점으로 본 풍경(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시리즈>  
조종성 작가는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으로 조명받는다. 한국화를 패러디나 유희적인 기호 놀이로 다루지 않고 한국 전통 산수화의 조밀한 농묵과 옛 선조들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탐구가 그 바탕이기 때문이다. 조종성 작가는 한국 전통산수화의 재료인 한지와 먹으로 풍경을 그린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람객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산과 돌, 나무와 집, 그리고 구름으로 들어가 다양한 시점으로 감상 할 수 있는 묘미가 숨어있다. 이것은 2차원적 시점으로 그리는 서양화의 시점에서 벗어나 내면의 시점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동양의 시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치밀하게 고안하고 의도된 숨겨진 화가의 시점을 찾아가다 보면 관람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참시키며 보는 이의 상상력과 지각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Jo Jongsung was born in 1977 in Busan, Korea and received his BFA at the Dong-A University. His major exhibitions include 'Finding a Perspective of Hidden Artist' at Responsibility for the Curiosity Gallery (Seoul, Korea, 2006) and 'Against Intervention' at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8). Also,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08), Savina Museum (Seoul, Korea, 2009), Pohang City Museum (Pohang, Korea, 2010), Johyun Gallery(Busan, Korea, 2011, 2016) and among many others. In 2019, Jo participated in the group exhibition at Christie's Hong Kong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with Paik Namjune, Kim Whanki, Chung Chang-Sup, Park Seo-Bo, Lee Ufan. Hi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MMCA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Seoul Museum of Art.

The artist, Jo Jongsung,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founder of Korean painting. Instead of parodying or treating Korean painting as an amusement symbolism, he explores the density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and the gaze of ancestors toward the landscape. For his artworks, he uses Korean landscape painting's materials; Hanji and ink. Even though the materials seem simple, various points of perspectives exist in his painting. Therefore, viewers can hop-in to the painting and enjoy the scenery of mountains, stones, trees, houses, and clouds from various perspectives. It helps to focus on the Oriental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Western perspective, which is painted from a two-dimensional perspective. Jo Jong Sung's paintings not only increase the viewer's imaginations but also attract them through discovering the artist's hidden perspectives, which are elaborately intentional.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19-4

2019  
Pigment, ink on Korean paper  
30×30 cm

800,000 KRW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19-3

2019  
Pigment, ink on Korean paper  
30×30 cm

800,000 KRW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19-8

2019  
Pigment, ink on Korean paper  
30×30 cm

800,000 KRW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19-2

2019

Pigment, ink on Korean paper  
30×30 cm

800,000 KRW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20-1

2020

Pigment, ink on Korean paper  
130.3×193.9cm

14,000,000 KRW



조현화랑 : 조종성



# SOLO SHOW: ON 2020.10.15-10.27

팩토리2

factory2

민정화

일러스트레이터 민정화는 아트북과 그림책, 프린팅과 페인팅 작업을 합니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고,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 게어스발데로 이주하여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고, 그 채소로 밥을 짓고, 식물과 빛과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저녁마다 노을에 감탄하고, 조용한 고양이들과 잠들며 작업하는 일상을 담아, 식물을 주제로 한 페인팅을 아크릴과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연구인 아트북 시리즈와 프린트를 직접 프린팅하고 손 제본하여 북페어에 소개하며, 페인팅과 벽화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여 전시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평면의 그림에 등장하였던 도형을 모티브로 하여 화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이어서 긴 호흡의 스토리를 가진 그림책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Jeong Hwa Min

Jeong Hwa Min is an illustrator and painter living and working in Gerswalde, Germany.

Her work focuses on studying and experimenting with light and shape. Min's work has evolved from complex scenes and storytelling to more abstract and ambiguous pieces. She explores the seedy undertones of everyday life.

<http://sugarlandparadise.com>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 휴관  
15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Tue-Sun 11am~7pm, closed on Mon

tel. 02-733-4883  
email: [factory2.seoul@gmail.com](mailto:factory2.seoul@gmail.com)  
homepage: [factory483.org](http://factory483.org)  
instagram: [@factory2.seoul](https://www.instagram.com/factory2.seoul)

## 팩토리 2 : 민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 Houseplants #48

2020

Acrylic and Airbrush on Paper

30x24 cm



## 팩토리 2 : 민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 Houseplants #55

2020

Acrylic and Airbrush on Paper

30x24 cm



## 팩토리 2 : 민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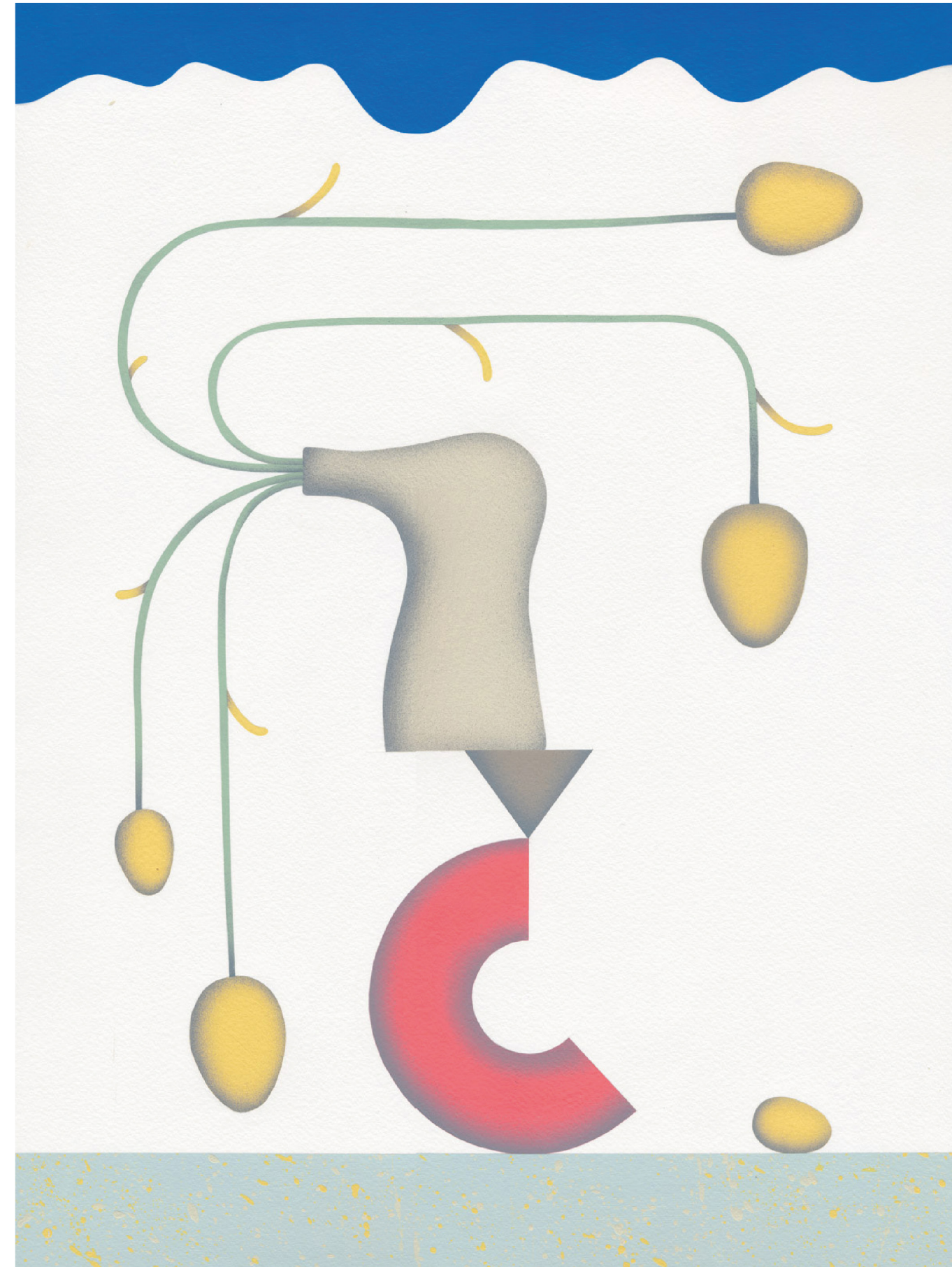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 Houseplants #60

2020

Acrylic and Airbrush on Paper

40x30 cm



팩토리 2 : 민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 Houseplants #64

2020  
Acrylic and Airbrush on Paper  
40x30 cm



팩토리 2 : 민정화

# SOLO SHOW:ON 2020.10.15-10.27

Solo Exhibition\_Houseplants

2019

Weserhalle, Berlin



팩토리 2:민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플레이스막

PLACEMAK

박철호

Park Chulho

박철호는 오래되거나 버려진 물건을 수집하고 조합해 이야기를 만든다. 그의 이야기는 사회와 개인이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 자본, 종교 등 사회 시스템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실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보고 사회 모순, 양가적인 집단의 양상 등을 짚어낸다.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풀어내는 이야기는 거대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

Park Chulho collects old, discarded things and makes a combination story. His story is also an exploration of where society and private people connect. He pointed out social contradictions and ambivalent groups on this view that individuals have unsuspecting beliefs about social systems such as state, capital, and religion. His story, expressed in a rather cynical tone, has an omniscient perspective on the individual who can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large society.

공간 전체를 아울러 설치극 형태로 제시되는 그의 작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영상과 텍스트를 이용해 우화로 풀어내는 초현실적 서사구조, 서사의 배경이 되는 무대 격의 설치물, 스토리보드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콜라주 기법의 회화다. 공간에 흩트려놓은 이야기를 맞추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방치되었던 가장 사적인 단위와 마주하게 된다.

His work, which is provided as an installation play using the entire space,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ose are surreal narrative structure unraveled by fables composed of video and text, a stage-like installa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narrative, collage painting that reminds you of a scene from a storyboard. If you match the pieces of the story scattered as individual 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you will encounter the most private units that have been neglected in an unreliable system.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22번지  
수-일 오후 12시~7시, 월, 화 휴관  
622 Yeonhee-dong Seodaemun-gu, Seoul  
Wed-Sun 12pm~7pm, closed on Mon, Tue

tel. 017-219-8185  
email: placemak@naver.com  
homepage: www.placemak.com  
instagram: @placemak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꼬리없는 황소  
tailless bull

2020  
혼합재료  
104×94cm

1,800,000 KRW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ON 2020.10.15-10.27

벌꿀오소리 화 크게남  
The honey badger is very angry

2020  
혼합재료  
119×101 cm

1,800,000 KRW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누가 이시간에 배달을 시켜  
Who orders delivery at this time

2020  
혼합재료  
110×114cm

2,000,000 KRW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ON 2020.10.15-10.27

야반도주중 UFO를 보다  
I see UFO during the moonlight flit

2020  
혼합재료  
154×151 cm

4,000,000 KRW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대탈출  
Great Escape

2020  
혼합재료  
154×219cm

6,000,000 KRW



플레이스막 : 박철호

# SOLO SHOW:ON 2020.10.15-10.27

학교재

**Hakgojae**  
Gallery

김재용

김재용은 화려한 색채의 도넛 도자 조각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다. 익숙한 형태와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특징이다. 대중매체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작품에 접목하기도 한다. 현대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고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는 시도다. 김재용의 작품은 관객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화려한 색채와 반짝이는 크리스털을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즐거운 작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작은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재용은 관객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앞서 즐기기를 바란다. 김재용의 도넛 연작은 두려움을 잊고,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웃어보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김재용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세 살부터 여덟 살까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했다. 1998년 미국 하트퍼드 아트 스쿨 도자 & 조각과를 졸업한 후 2001년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자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몬클레어 주립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워롱미술관(상하이), 보이시 미술관(미국),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뉴욕) 등 다수의 해외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허미티지박물관(미국), 뮤지엄 오브 아트 & 히스토리(미국), 광주시립미술관(광주)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파워롱미술관, 데노스박물관(미국), 하트퍼드 대학교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Jae Yong KIM

Jae Yong KIM is renowned for his vividly colored donut sculptures. Familiar forms and simple narratives characterize his works. He refers to images from mass media in his works as an attempt to overturn the prejudice that fine art is difficult and induce the public's comprehension. KIM's works immediately capture the viewer's eyes. The captivating expressions using vivid colors and shining crystals stand out. The artist started to use various colors and shapes to enjoy working. KIM wishes viewers from various backgrounds to enjoy his works before trying to comprehend. KIM's donut sculptures encompass the hope to forget fear and to lighten up for a smile.

Jae Yong KIM was born in Seoul, in 1973. He lived in Kuwait and Saudi Arabia from age three to eight. In 1998,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Ceramics & Sculpture at Hartford Art School, University of Hartford. In 2001,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Ceramics at Cranbrook Academy of Art.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from 2014 to 2015. Since 2015, 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at international art institutions such as Powerlong Museum (Shanghai), Boise Art Museum (Boise, U.S.), Lyons Wier Gallery (New York), etc. He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at Hermitage Museum & Gardens (Norfolk, U.S.), Museum of Art & History (Lancaster, U.S.), Gwangju Museum of Arts (Gwangju, Korea), etc. His works are part of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Powerlong Museum (Shanghai), Denos Museum Center (Traverse City, U.S.), University of Hartford (West Hartford, U.S.), etc. He is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Seoul.

학교재 : 김재용

# SOLO SHOW: ON 2020.10.15-10.27

아주 아주 큰 빨강 점 버블 도넛 020  
XXL Donut 020

2020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FRP, urethane, Swarovski crystals  
100×100×36(d) cm



학교재 : 김재용

# SOLO SHOW: ON 2020.10.15-10.27

아주 아주 큰 노랑 점 곰 도넛 022  
XXL Donut 022

2020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FRP, urethane, Swarovski crystals  
90×120×36(d) cm



학교재 : 김재용

# SOLO SHOW:ON 2020.10.15-10.27

## 꽃밭의 유니콘 Ver. 2 The Unicorn in Flower Garden Ver. 2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산화 코발트,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Ceramic, under glaze, cobalt oxide, glaze, Swarovski crystals  
35×25×3.8(d) cm



학교재 : 김재용



# SOLO SHOW: ON 2020.10.15-10.27

## 듀오 샤이닝 도너츠 Duo Shining Donuts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Ceramic, under glaze, glaze, Swarovski crystals

20×38×10.5(d) cm (framed)



학고재 : 김재용

# SOLO SHOW: ON 2020.10.15-10.27

## 옐로우 도너츠 Nine Yellow Don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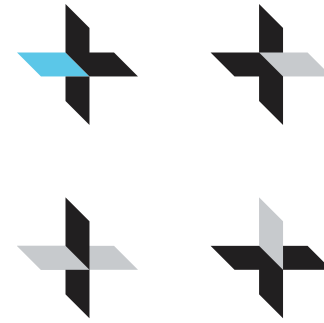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Ceramic, under glaze, glaze, Swarovski crystals  
51×51×10.5(d) cm (framed)



학고재 : 김재용

# SOLO SHOW:ON 2020.10.15-10.27

## 합정지구



## 김민희

주로 회화를 다루며, 맥락을 이탈하고 조합하는 감각에 관심이 있다. 《고스트 비키니》(아웃사이트, 2020), 《오키나와 판타지》(합정지구, 2018)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단체전 《X의 산》(산수문화, 2019), 《파라노이드 파크》(코엑스, 2019) 등에 참여했다.

김민희는 맥락이 지워진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서사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감각을 창출하는 회화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가 차용하는 방식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애니메(anime)의 장면들이 'gif' 형식으로 짧게 편집되어 새로운 장르로 유통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작가는 과거에 유행한 콘텐츠에서 이미지를 발췌하지만 기존의 서사를 바로 감지할 수 없도록 이미지 자체를 유희한다. 캔버스 위로 옮겨진 이미지는 두꺼운 외곽선과 고채도의 색상으로 덧칠되어, 회화의 질감은 최소화되고 화면은 더욱 평면적으로 연출된다. 마치 80-90년대 디지털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화면은 유화가 지닌 본연의 두껍고 무거운 물성과 상충하여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민희는 이미지가 지닌 단편적인 향수와 오늘날의 소비 방식을 회화의 방법론으로 전유하여, 맥락 없이 뒤엉키는 이미지의 범람으로부터 유발되는 동시대의 감각을 회화에 담아낸다.

## Kim Min Hee

Kim Min Hee works primarily with painting. She is highly interested in the sense of breaking away from a context and re-combining them. Solo presentation includes "Ghost Bikini", out\_sight, 2020; "Okinawa Fantasy", Hapjungjigu, 2018.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of: "Mountains of X", Sansumunhwa, 2019; "Paranoid Park", COEX, 2019.

Kim Min Hee is interested in images from the context and has continued to experiment with painting that creates a new sense by combining images from the narrative. The way of appropriation is in line with the scenes of 'anime' that are briefly edited in the form of "gif" through a video sharing platform and distributed into a new genre. She extracts images from content that has been popular in the past, but plays the image itself so that its narrative cannot be detected immediately. The images carried over the canvas are overlaid with thick outer lines and high-color colors, minimizing the texture of the painting and making the painting more flat. The painting, which reminds us of digital images from the 80s and 90s, conflicts with the natural thick and heavy nature of oil paintings, creating a heterogeneous atmosphere. Kim Min Hee transfers the fragmentary nostalgia of the image and the way it is consumed today to the methodology of painting, capturing the contemporary sense of the painting caused by the flood of images that are tangled without context.

# 합정지구 : 김민희

# SOLO SHOW:ON 2020.10.15-10.27

Human\_faced bird

2020

Oil on canvas

72.7×72.7 cm



합정지구:김민희

# SOLO SHOW:ON 2020.10.15-10.27

큐리

2020

Oil on canvas

53.0×40.9cm



합정지구:김민희

# SOLO SHOW: ON 2020.10.15-10.27

하이?빠이!

2019  
Oil on canvas  
130×1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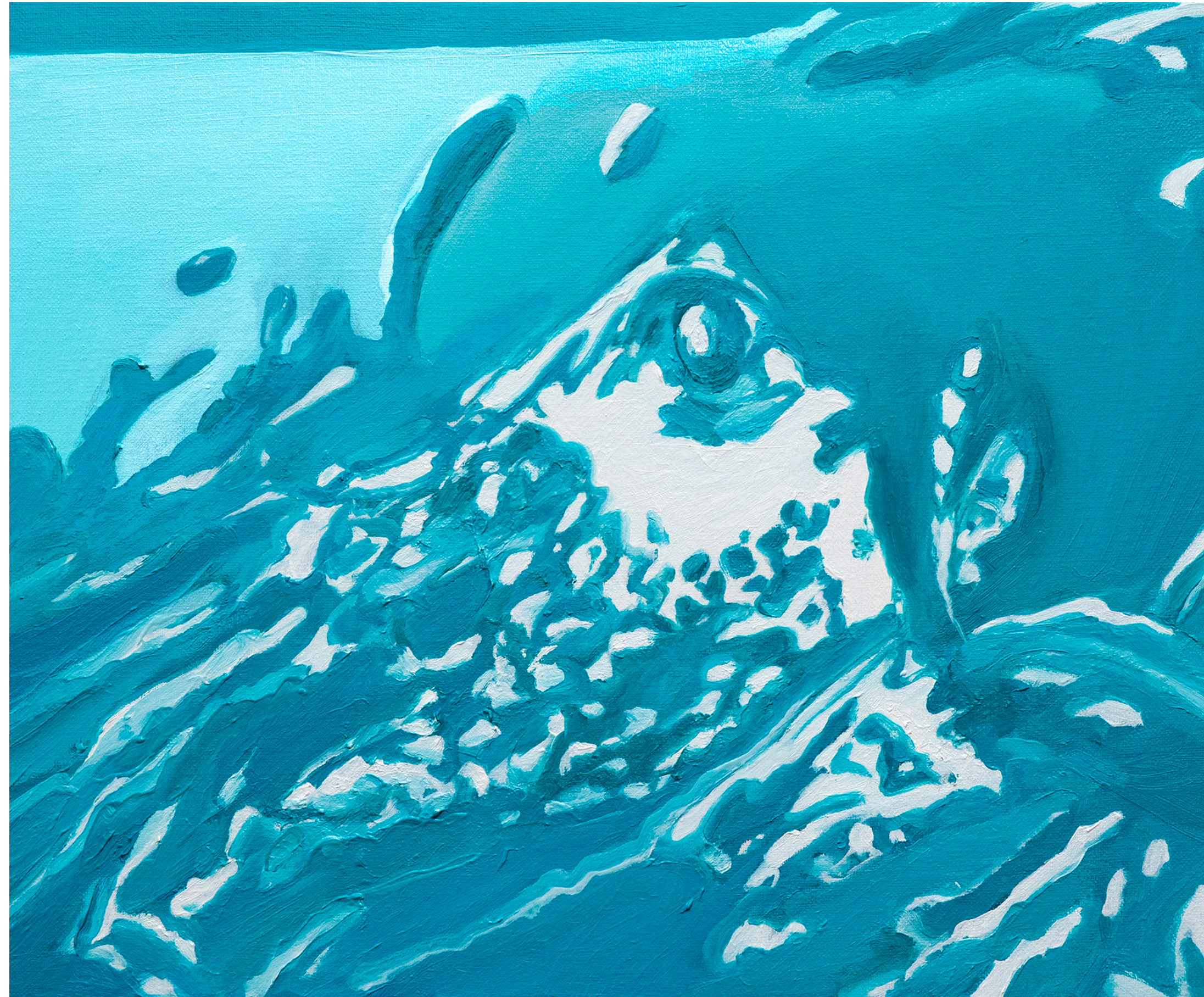


합정지구: 김민희

# SOLO SHOW: ON 2020.10.15-10.27

Bubble eye

2020  
Oil on canvas  
45.5×37.9cm



합정지구: 김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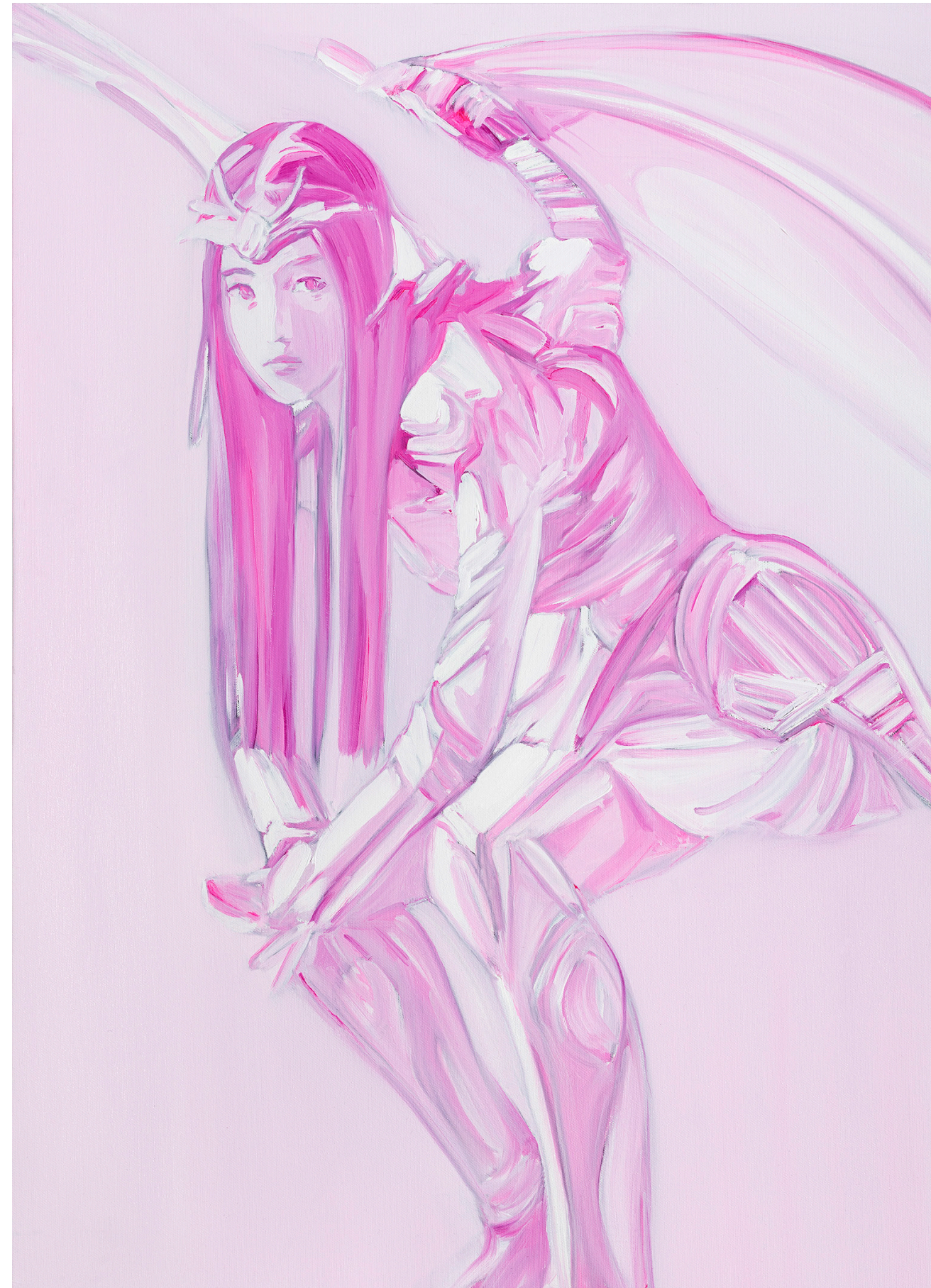
# SOLO SHOW:ON 2020.10.15-10.27

Techno warrior

2020

Oil on canvas

53.0×4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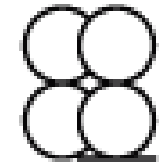
합정지구:김민희



# SOLO SHOW: ON 2020.10.15-10.27

현대미술회관

COCA Center of Contemporary Art



현대미술회관

박상호

박상호는 도시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에 대해 질문한다. 도시는 늘 우리를 둘러싸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하지만 도시를 인식하는 것과 실제의 도시 간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진 도시의 기억과 고착된 이미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박상호는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내포한 가상적 측면, '만들어진 실제(재)'를 가시화한다. 작가는 '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에 인식적 장치로 몇 개의 층을 설정하고있다. 그 하나가 건물의 표면인 파사드이고, 다른 하나는 무대를 상상하게 하는 구조물과 기구 같은 것들이다. 그는 도시 풍경을 건물의 외관 중심으로 촬영하고, 파사드만 남긴 채 뒷면이 건축용 비계로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다. 화면 속 건물은 물리적 부피감과 기능을 상실하고,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불법한 구조물로 변환된다. 작품들은 일견 파편화된 구조물로 무대 속에 있었던 부분처럼 보이지만, 개별 유닛의 조형 요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인식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도시 풍경의 단면을 다시금 일깨워 볼 수 있다. 이 풍경은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의 전형적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PARK Sangho

PARK Sangho explores the elements which enable the recognition of urban space. City exists at any time and everywhere as a surrounding of our contemporary environment. However, there lies a deviation between the act of recognizing city and its actual reality, as memories and images, which art fixated, remains subjective to each individual. PARK reflects on this imaginary aspect of the cityscape, the 'made-up reality'. As a tool to perceive the massive space of 'city', the artist sets multiple layers. One is the facade, the face of the building, and the other is the structures and tools which are reminiscent of a theatre. On the photographs of the cityscapes, he would erase all but the facades of the buildings, and present an image which the facade are supported by scaffolds. Then the buildings, devoid of physical volume and function, are transformed into a structure often seen in movie sets. His works appear ad fragmented structures from the theatre, however the formative elements of each unit holds its own presence of being. The standpoint of PARK allows viewers to re-examine the familiar cityscape. Perhaps the scenery we recognize through PARK's work is out typical image of a contemporary city.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85번 가길 9

목-토 오전 11시~오후 6시, 월-수, 일 휴관

9, Mangmibeonyeong-ro 85beonga-gil, Suyeong-gu, Busan

Thu-Sat 11am~6pm, closed on Mon-Wed, Sun

email: cocabusan@daum.net

homepage: www.cocabusan.kr

instagram: @centerofcontemporaryart

##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LOT #13

2019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8×74cm

3,400,000 KRW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LOT #10

2018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0×75cm

3,400,000 KRW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LOT #9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5.6×95.3cm

3,400,000 KRW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LOT #2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72.8×103.3cm

3,000,000 KRW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PLOT #1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7.7×78cm

3,400,000 KRW



현대미술회관 : 박상호

# SOLO SHOW: ON 2020.10.15-10.27

## 피투원

서울시 용산구 회나му로 74 (이태원동 5-13)  
화-금 오전 11시~오후 6시, 토-일 오후 12시~6시, 월 휴관  
74 Hoenamu-ro Yongsan-gu, Seoul  
Tue-Fri 11am~6pm, Sat-Sun 12pm~6pm, closed on Mon

tel. 02-790-5503  
email: info@p21.kr  
homepage: p21.kr  
instagram: @p21.kr

## P 21

## 최정화

“당신의 마음이 나의 예술이며, 나의 취미가 현대미술입니다.”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라는 최정화 작가.

최정화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1987년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90년대부터 전 세계의 각종 비엔날레와 해외 전시에 참여하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해 온 설치미술가이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영화, 건축, 무대 디자인, 연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는 전방위 예술가다.

최정화 작가는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시기를 거친 세대로 대량 생산과 물질주의, 소비문화, 자연스러운 것과 인공적인 것, 오리지널과 복제 등의 주제를 다루며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태도와 신념으로 작품에 실현해왔다. 그는 인조 꽃, 알록달록한 소쿠리, 로봇 인형, 구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물건들을 이용해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결코 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일상임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속에 내포된 최정화의 공통된 생각은 그가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며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정화의 최근 작업은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피로한 이즈음 평안과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를 외치며 무릉도원을 꿈꾸던 고려인들처럼, 과거의 평화로운 삶을 그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는 일상 소재들로 생활 기념비를 만들어 희망을 선사하고자 한다. 최정화에게 예술은 한정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강한 ‘울림’, ‘떨림’보다 깊은 ‘스뮴’과 같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곧 예술이므로, 그는 줄곧 생활 속 예술을 실천해왔다. 작가는 비루하고 속된 것마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재생시켜 기념비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곁에 있어도 예술인지 몰랐던 존재들을 새로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예술을 매개로 우리들의 오늘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아름답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한다.

## Choi Jeong Hwa

“Your heart is my art. My hobby is contemporary art.”

Choi Jeong Hwa is an artist and designer whose work moves between the disciplines of visual art, graphic design, industrial design and architecture. His inspiration comes from popular culture and day-to-day life. This is reflected in his choice of media ranging from video, moulded plastic, shopping trolleys, real and fake food, lights, wires and kitsch artifacts. Best known for his large-scale inflatable sculptures – notably lotus blossoms – Choi's practice is marked by an irreverent take on cultural icons and materials that permeate our daily life. Large-scale outdoor sculptures crafted from diverse materials such as consumer goods, balloons, wires, as well as recycled and found objects are the hallmarks of Choi's playful repertoire.

Choi has participated in many biennials of contemporary art, including the Arsenale Kyiv<sup>2012</sup>, the 17th Sydney Biennial<sup>2010</sup>, the Gwangju Biennale<sup>2006</sup>, the Venice Biennale – Korean pavilion<sup>2005</sup>, the Liverpool Biennial<sup>2004</sup>, the Lyon Biennale<sup>2003</sup>, the Yokohama Triennale<sup>2001</sup>, the Sao Paulo Biennale<sup>1998</sup> and the Taipei Biennale<sup>1998</sup>. Choi Jeong Hwa was born 1961 in Seoul, Korea. He lives and works in Seoul.

While the world is exhausted from the lengthy pandemic, Choi wishes to share messages of hope and recovery through his recent series of work. Like the way that the people of Goryeo cried out ‘sarorisaroriratta’ (literally “Live, I will live”) for their aspiration toward utopia, Choi erects daily-life monuments created with everyday objects to present those who are deeply craving a normal life with earnest hope.

##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生  
Life

2020  
네온, 패널 위에 천 부착  
103×105×10cm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心  
Heart

2020  
네온, 크롬 코팅된 철판  
60×10cm(왼쪽), 80×10cm(오른쪽)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연금술  
Alchemy

2019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40×40×35 cm(왼쪽), 30×30×25 cm(오른쪽)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연금술: 인피니티  
Alchemy: Infinity

2020  
유기, 플라스틱 그릇, LED, 스테인리스 스틸  
115×150×115cm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코스모스  
Cosm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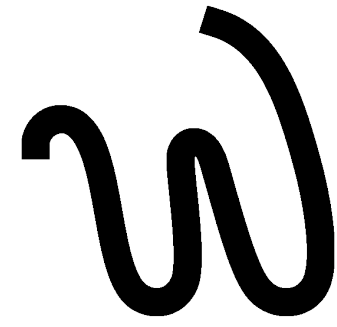
2020  
혼합재료  
167×98×47 cm



P21 : 최정화

# SOLO SHOW: ON 2020.10.15-10.27

## Whistle



서울시 용산구 회나му로 13 길 12, 3 층  
화-금 오후 1시~7시, 토 오후 1시~8시, 일, 월 휴관  
3F, 12 Hoenamu-ro 13-gil, Yongsan-gu, Seoul  
Tue-Fri 1~7pm, Sat 1~8pm, closed on Sun, Mon

tel. 02-794-4775  
email: info@whistlewhistle.kr  
homepage: whistlewhistle.kr  
instagram: @whistle\_seoul

## 김지영

김지영(1980, 서울 거주 및 활동)은 정사각형의 종이 위에 감정의 좌표를 그린다. 작가에게 정사각형 1 면은 시간의 단위로 그 위에 걱정, 안도감, 소망, 희망, 설렘, 혼란스러움 등 작가가 느끼는 여러 감정을 측정한다. 작가는 감정의 상태와 크기를 숙고한 후 그에 맞는 색깔을 정하고 때로 음표를 붙이기도 한다.

그는 각 감정의 크기와 할애하는 시간은 각기 다르며, 여러 감정이 합쳐져 복잡하고 독특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색깔을 조색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색상표를 만든 후 감정의 미세한 이동과 대립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가 사용하는 정사각형의 종이는 시간의 단위다. 즉, 작가가 순서대로 배열한 여러 장의 종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시간의 사각형 안에 존재하는 선과 작은 원들은 같은 시간대에 존재한다. 같은 시간대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의 세포들은 서로 간격을 조절하며 안정된다. 정사각형 안에 세워진 선의 방향, 그리드의 간격, 곡선 등은 작가만의 시간 체계로 감정을 느끼는 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감정의 크기와 강도를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감정이 자라고 지속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종이 위에 선의 길이와 도형의 크기로 세밀하게 기록한다.

## Gi Young Kim

Gi Young Kim(1980, Lives and works in Seoul) draws emotional coordinates on square pieces of paper. For the artist, a side of a square is the measurement of time, where coordinates of emotions, such as anxiety, relief, desire, hope, excitement and confusion, are calculated onto the surface. After considering the state and size of the emotions, the artist sets the appropriate colors and sometimes labels them with a musical note.

According to the artist, the size of each emotion and the time devoted to i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the combination of emotions creates complex and unique ones. Kim mixes appropriate color for each emotion. The author creates a color chart of emotion then draws its minute movement to depict the conflict between specific emotions.

The square paper used by the artist is a unit of time. Several sheets of paper arranged to represent the passage of time. Lines and small circles within a rectangle of time exist in the same time frame. Adjusting the spacing between the cells of sentiment within the same time frame stabilized their movement. Time runs at different speeds depending on how and at when it is conceived. The direction of the line, the spacing of the grid, and curves within the square represent the artist's time system, the speed of her emotions. Kim also studies depiction of the size and intensity of feelings, recording in a specific length of lines and shapes of how long a sentiment grows and lasts.

# Whistle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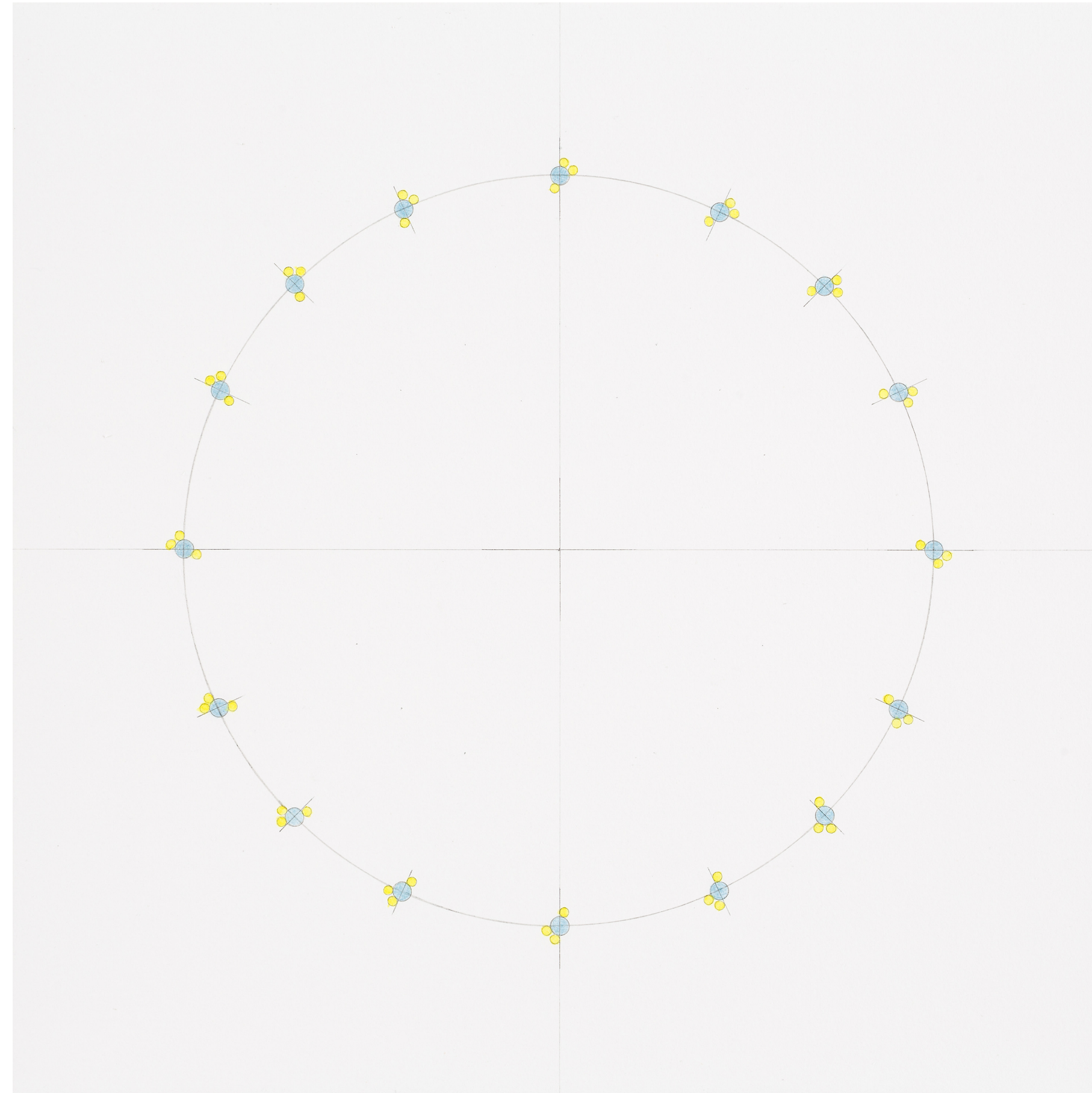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it is ok to be a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24.6×24.6 cm



Whistle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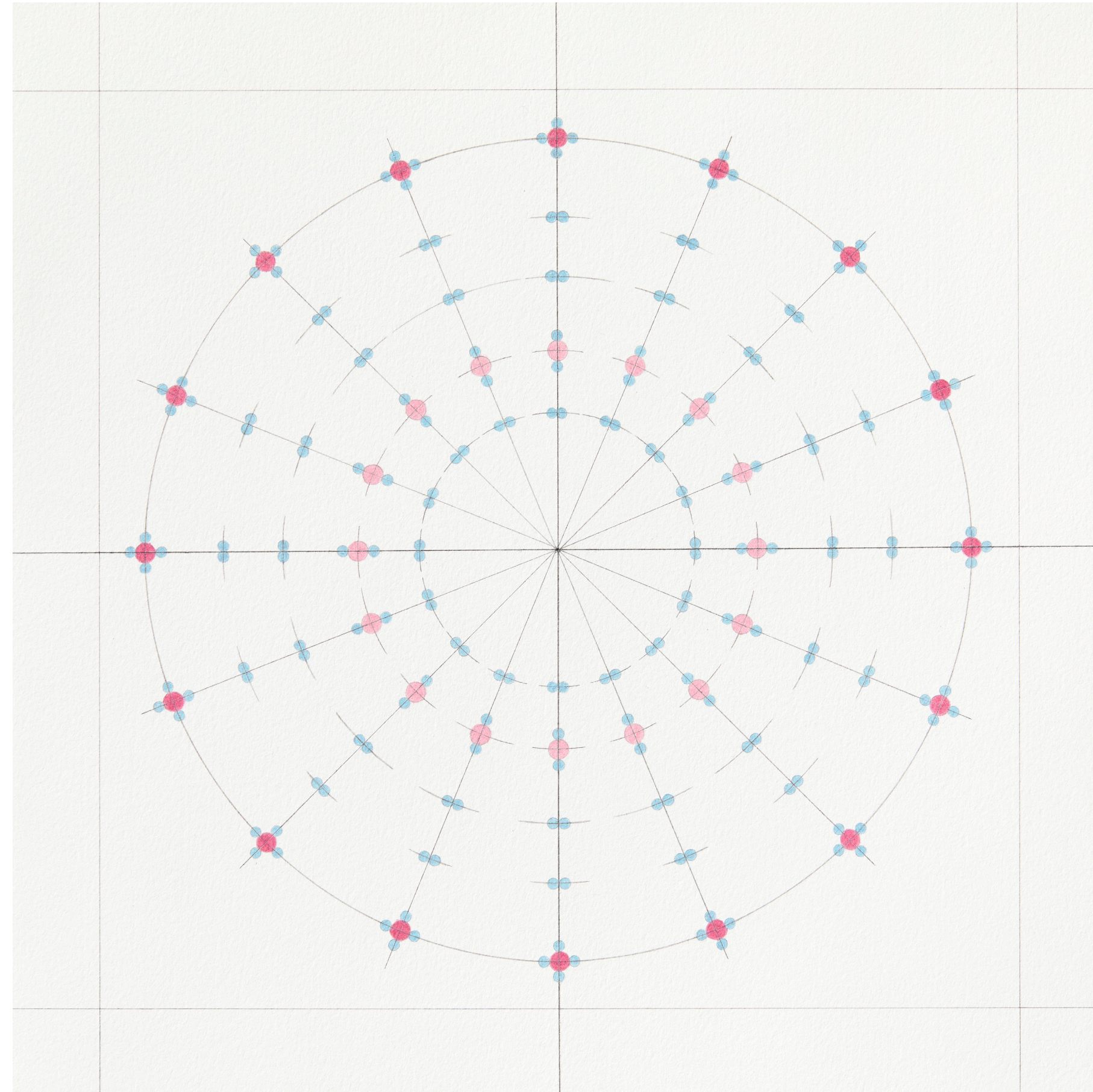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someday, i will be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24.4×24.4 cm



Whistle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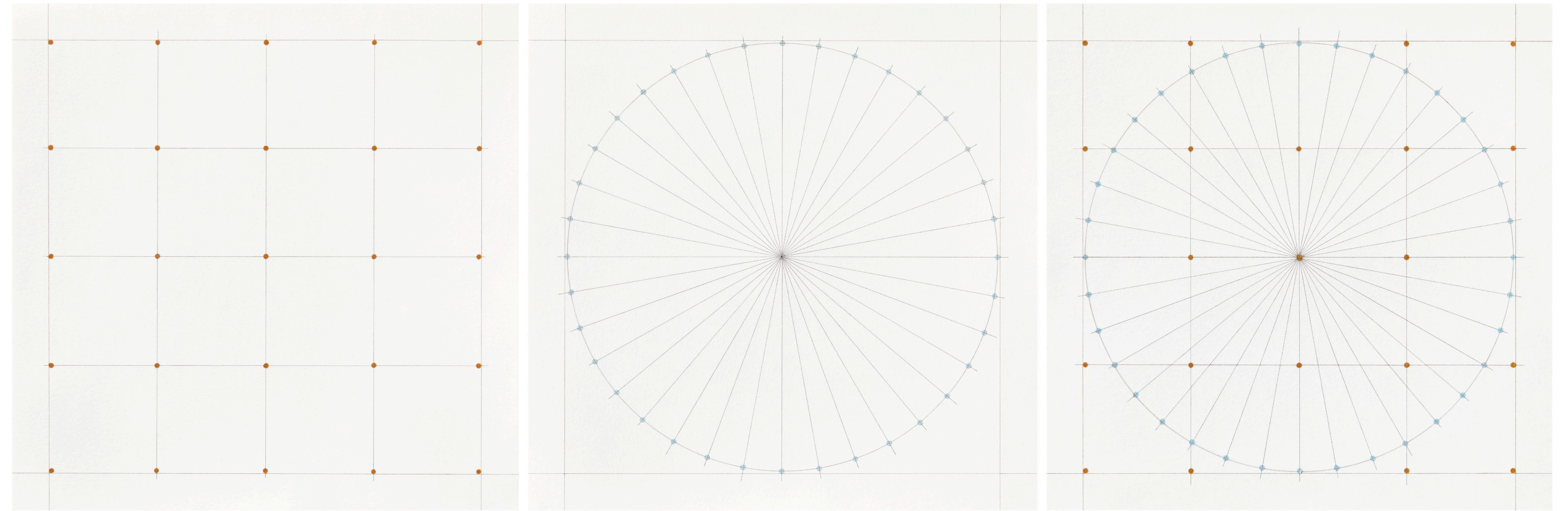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 time of security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set of 3 pieces

27×27 cm (each)



Whistle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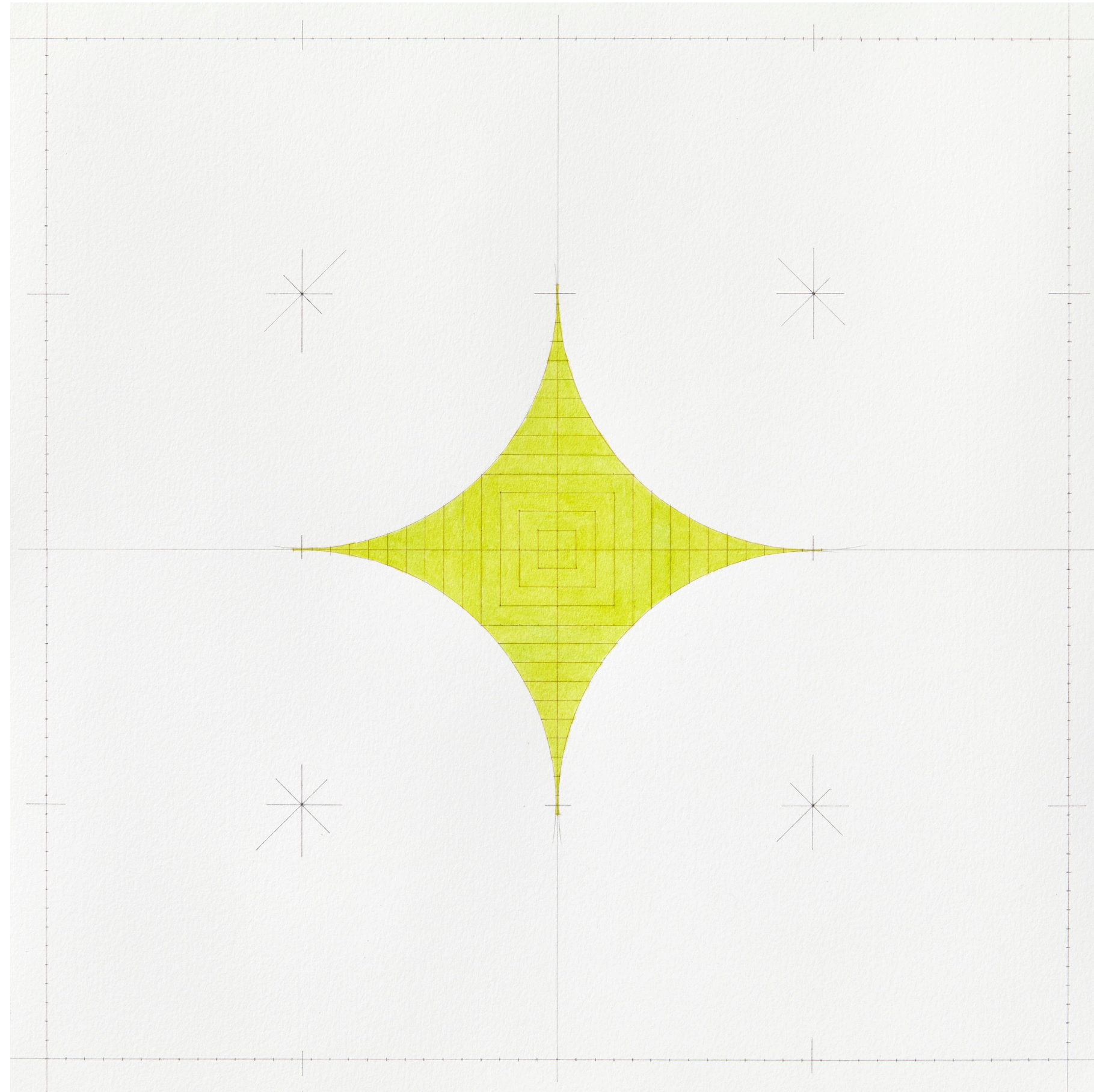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worry a

2019

Acrylic and graphite on paper

29.1×29.1 cm



Whistle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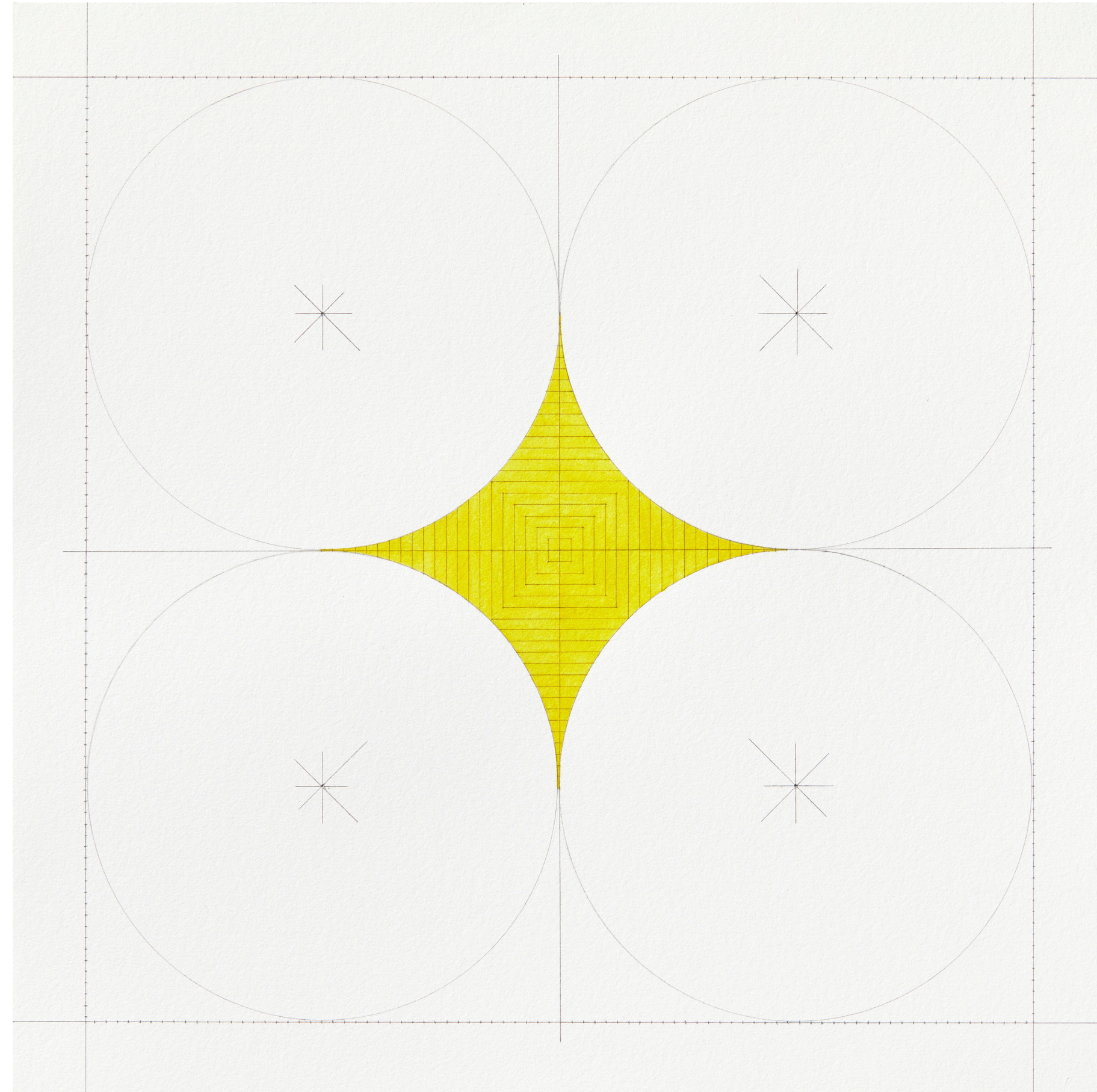
# SOLO SHOW: ON 2020.10.15-10.27

worry b

2019

Acrylic and graphite on paper

29.1×29.1 cm



Whistle : 김지영